

국제회의

---

# 무기거래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

How to resist the arms trade

---

1부 : 수출된 한국산 무기, 어떻게 쓰이나

2부 : 교차성X무기거래

---





## 목차

### 1부 수출된 한국산 무기 어떻게 쓰이나

국제회의 소개 .....	4
한국산 무기 수출의 쟁점들 .....	8
한국산 물대포가 민주주의를 망친다 .....	11
미얀마, 스리랑카를 울리는 한국산 최루탄 .....	16
한화의 장갑차는 누구를 죽이나 .....	19
무기 수출국과 수입국 민중의 연대 .....	30

### 2부 교차성×무기거래

페미니즘과 무기거래 .....	48
그린워싱 무기거래 - 방위산업이 만드는 친환경전쟁 .....	62
난민과 무기거래 - 살아있는 무기로 거래되는 감염인과 비인간동물, 난민화의 경로를 마주하고 .....	69
기후위기와 무기거래 - 폭격의 잭팟과 기후위기 .....	77
우리는 왜 연결되어야 하는가 .....	82

## Contents

### Part1 How are South Korean weapon being used?

Issues in South Korea's Arms Exports .....	88
South Korean water cannons ruin democracy .....	92
How South Korea's exported weapons are used Cases in Myanmar and Sri Lanka .....	97
Who do Hanwha's armored vehicles kill? .....	101
Solidarity between arms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ies .....	112

### Part2 Arms trade×Intersectionality

Arms trade and Feminism .....	114
Arms trade and Green-washing: Green warfare created by defense industry .....	115
Arms trade and Refugees: Infected people and non-human animals traded as living weapons - confronting pathways to refugeeization .....	122
Arms trade and Climate Crisis: Hitting the Jackpot with bombs and the Climate Crisis .....	130
Why should we be connected? .....	136

## 국제회의 소개

전쟁없는세상은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과 인권 침해 현장에서 한국산 무기가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왔습니다. 작년 초 한국 정부와 천궁II 약 4조 원어치를 계약한 아랍에미리트는 예멘 내전에 깊숙하게 개입한 국가입니다. 이 무기는 예멘에서 전쟁을 지속하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이미 이 전쟁에서는 한국의 대전차유도미사일 ‘현궁’과 한화의 수류탄이 쓰였습니다. 2018년 제주에 500여명의 예멘 출신 난민들이 입국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는데 이 전쟁에서 한국이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0년 9월 시작된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에서는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이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산 무기와 시위 진압 장비는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에 쓰이고 있습니다. 경제난으로 작년 3월부터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는 스리랑카 시민들을 향해 스리랑카 정부가 발포한 최루탄은 한국산으로 밝혀졌습니다. 2020년 가을, 태국에서는 한국의 지노모터스가 만든 물대포 차량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태국 시민들을 겨눴고, 2021년 미얀마에서는 대광화공이 수출한 최루탄이 군부 쿠데타에 맞서 저항하던 미얀마 시민들을 위협했습니다. 대지정공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한 물대포와 경장갑차는 오랜 시간 동안 인도네시아의 식민 점령에 맞서 독립운동을 벌이고 있는 웨스트파푸아 사람들을 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쓰여 왔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무기 수출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 무기 수출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합니다. 한국은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전 세계 무기 시장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큰손이었습니다. 더욱이 무기 수출 10위 권 국가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수출 점유율이 상승하는 나라입니다. 방위 산업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로, 무기 수출은 외화 벌이로 포장됩니다. 작년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일어난 전쟁에서도 한국 정부는 평화의 중재자를 자처하기보다는 폴란드, 캐나다 등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나라들에 한국산 무기를 수출하는 것에만 몰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산 무기는 나날이 산업이 성장하고 있고, 실제로 분쟁 지역과 독재 국가에서 사용되어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윤리적 정치적 책임은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무기거래조약 비준국이고 방위사업법 등에서는 국제 평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방산 물자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정부는 오히려 방위 산업 진흥을 위해 방위 산업체들의 세금을 감면하거나 정부가 나서서 무기 수출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대부분 외부에서 공급 받거나 조달한 무기로 벌어집니다. 예멘 전쟁의 경우 이미 사우디 주도 연합군에 한국을 비롯 여러 국가들이 무기를 계속 공급하였고 분쟁이 시작된 이래로 이미 180억 달러(약 24조)가 넘는 무기가 판매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기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 전쟁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전쟁을 막고 싶다면 무기 거래를 중단 시키는 일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무기 거래를 중단시키기 위해 우리는 무기 거래의 교차성에 대해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무기의 개발과 생산, 거래와 그로 인한 전쟁의 댓가는 모두가 동등하게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를 생산하기 위한 지하자원은 어디서 채굴이 되고 어디서 그 무기는 실험됩니까? 갓배 마을의 주민들은 무기의 생산과 거래로 어떤 이득을 보았을까요? 만약 자율 무기가 상용화되면 누구를 표적으로 프로그래밍이 될까요? 특정 성별, 성 정체성, 인종, 민족, 종교, 장애 유무 등 모든 것이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군축에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다양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인종, 계층, 능력 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군축은 비패권적 아이디어, 상상력, 관점이 정책과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사고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확대하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폭력적이고 강력한 남성과 취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사회 구조를 영속화 시키는 젠더 규범 등 사회적으로 구성된 규범들에 도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회 규범 하에서 무기는 일반적으로 보안, 권력, 통제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지만 군축은 국가를 약화시키거나 더 취약하게 만드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무기 거래는 다층적인 문제이며 이를 중단 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회 운동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 분야는 국가 안보라는 이유로 그 정보조차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을 모아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서로가 서로의 경험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없는세상이 20주년을 맞는 올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20년을 잘 버텨온 전없세가 다음 20년을 더 잘 모색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지혜를 나눠 주세요.

# 1부

## 수출된 한국산 무기, 어떻게 쓰이나

한국산 무기 수출의 쟁점들 (쥬, 전쟁없는세상)

한국산 물대포가 민주주의를 망친다 (네티윗,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를 울리는 한국산 최루탄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한화의 장갑차는 누구를 죽이나 (에스더, 웨스트파푸아)

무기 수출국과 수입국 민중의 연대 (젤다, 호주)

# 한국산 무기 수출의 쟁점들

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한국의 무기 수출은 2018~2022년 기준 세계 9위를 기록하며 국가 신성장 동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지난 10년간 연간 30억 달러 남짓하던 것이 2021년 72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품목은 육해공 무기를 아우릅니다. 한화의 장갑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로켓, 현대로템의 K-2 전차,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FA-50 경공격기, LIG넥스원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과 천궁-II 지대공 미사일, 풍산의 탄약류 등이 주로 수출됩니다.

## 문제점 1: 분쟁 지역으로 수출

한국의 무기 수출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분쟁에 개입된 국가를 주고객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지난 5년간 무기 수출을 해온 국가 중 미국,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는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국입니다. 무기 지원으로 인한 전력 공백을 한국산 무기가 채우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에 판매되는 무기는 직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셈이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장기화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는 예멘 내전 개입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도의

아랍 동맹군은 예멘 반군뿐 아니라 민간 시설에 대해서도 사실상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해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 인권 단체들은 예멘에서 사용될 목적의 무기 이전 및 군사적 지원을 즉시 중단하라고 모든 무기 공급국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이라크, 이스라엘은 국내외적으로 분쟁 중인 국가입니다. 특히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한국산 무기의 주요 수입국입니다. 필리핀은 민다나오섬에서 진행 중인 모로 분쟁에 FA-50 경공격기를 투입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웨스트 파푸아 민중의 저항을 탄압하는 데 한화의 바라쿠다 장갑차, 대지정공의 물대포차 등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 2: 비인도적 무기 생산 및 수출

한국 무기산업의 또 다른 문제는 비인도적 무기를 생산 및 수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산탄과 대인지뢰는 무차별적인 살상과 민간인에 많은 피해를 입히는 특성으로 인해 대표적인 비인도적 무기로 여겨집니다. 현재 확산탄금지협약은 110개국, 대인지뢰금지협약은 164개국이 가입한 국제협약입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소수의 국가만이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16개 확산탄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주요 무기회사인 한화와 풍산도 최소한 2012년까지 확산탄을 생산하고 수출했습니다. 한화는 확산탄 사업이 국제적으로 문제시되어 해외 사업에 지장이 되자, 그룹 전체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확산탄 관련 사업을 지난 2020년에 분할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한화가 확산탄은 생산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확산탄 발사 체계인 천무를 생산하고 수출까지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입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수차례 발사한 적 있는 지대지 전술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도 확산탄두를 싣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확산탄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밝혔지만, 실전배치를 해놓고 실사격 훈련을 한다는 것은 유사시 비인도적 무기를 사용하겠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유사시에 대비해 화학무기 사용 훈련을 하는 격입니다.

한국은 11개 대인지뢰 생산국 중 하나입니다. 대인지뢰의 주요 제조사인 한화는 2005, 2006년에 클레이모어 대인지뢰 약 2,000개를 뉴질랜드로 수출한 바 있습니다. 한화는 2011년에도 KM74 대인지뢰 4,000개를 생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19년 지난 5년간 대인지뢰를 생산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앞으로의 생산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죽음의 시장, 무기 박람회

무기 박람회는 특히 최근 무기거래의 주 매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종합 무기 박람회 ADEX, 지상 무기 박람회 DX KOREA, 해양 무기 박람회 MADEX, 경찰 무기 박람회 KPEX 등 다양한 무기 박람회가 열립니다. 여기서 육해공 군사무기와 경찰무기가 일반 시민들에게 ‘멋진’ 상품으로 둔갑됩니다. 더 큰 문제는 단순히 전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기 박람회를 통해 세계에서 온 무기상인과 각국 군 관계자들은 서로 만나 수출 상담을 하고 실제 계약을 맺습니다.

작년 DX KOREA에는 20여 개국에서 ‘VIP’가 초청됐는데 절반 이상이 전쟁 및 분쟁에 개입된 국가였습니다. 무기 박람회 ‘VIP’들은 전쟁국가의 대리인입니다. 전쟁범죄자들을 친히 초대해 세금으로 5성급 호텔에서 값비싼 밥을 먹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무기를 손에 쥐어주는 것이 무기 박람회의 본질입니다. 무기회사들은 그들의 제품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데 사용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과 무력 분쟁, 인권탄압에 사용됨을 알고도 서슴지 않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의 무기 수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각국은 군비를 대폭 증강하고 나섰습니다. 그 덕에 한국의 무기 수출은 작년 124억 달러 상당의 폴란드 수출을 필두로 날개 돋힌 듯한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이 낸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변화가 한국 같은 신흥 무기 수출국에게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말합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수차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무기 지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전쟁법 위반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은 이미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미국, 폴란드 등을 거쳐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우회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점점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 정보기관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관련 한국 정부의 내부 논의를 감청한 것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확인해줄 수는 없다”고만 말했습니다.

분쟁 및 전쟁 당사국에의 무기 공급은 평화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대외무역법과 방위사업법이 규정하는 무기 수출의 조건인 ‘평화적 목적’이라는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힘에는 더 강한 힘으로 대응한다는 ‘힘에 의한 평화’의 논리로는 군비경쟁의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진정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재고하고, 무기 수출 확대 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 한국산 물대포가 민주주의를 망친다

네티윗 인권활동가, 병역거부자, 태국



## 무기화된 태국

네티윗 초티팻파이산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당을 해산함  
헌법재판소, 퓨처포워드당(Future Forward Party)  
해산 결정



완차렐름(Wancharein) 납치  
캄보디아에서 태국 경찰에게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반군주제 운동가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다른 많은 사례에 추가



교묘한 헌법  
군정에 의해 선출된 상원이 총리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뿌라웃(Prayuth)  
장군이 다시 한 번 총리가 됨



2020년  
10월 16일

젊은이들을 변화시킨 날





정치학부 안전 구역



한국로부터



## 한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 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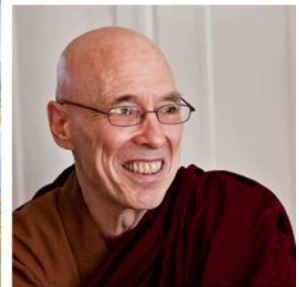
경찰은 시위 해산을 위한 도구 중 하나로 고압 물대포 트럭을 사용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경찰이 평화로운 시위대를 향해 건강에 위험한 최루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3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이 사건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18세 미만이었어요. 케이팝 팬클럽도 많았죠.

이번 사건에 사용된 두 대의 물대포 트럭은 '지노'라는 이름으로 2012년에 대당 2,500만 바트에 수입된 한국산입니다. 85미터 이상의 거리에 물을 분사할 수 있고 12,000리터 이상의 물을 담을 수 있으며 고주파 증폭기와 수용성 염료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한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태국 정부의 고압 물대포 트럭 수입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태국 국민에 대한 이러한 범죄 행위를 지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태국 민주화 운동을 통해 평화와 민주주의를 향한 변화를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불교와 무기 판매의 윤리



"승려 여러분, 신자는 다섯 가지 종류의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인가? 무기를 다루는 사업, 인간을 다루는 사업, 고기를 다루는 사업, 취하게 하는 사업, 독을 다루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사업입니다."

PEACE



designed by  freepik

한국은  
태국과 다른  
독재 국가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 미얀마, 스리랑카를 울리는 한국산 최루탄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미얀마 시위진압에 사용된 한국산 최루탄

- 2021년 2월1일에 발생한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미얀마 시민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였음.
- 미얀마 군부와 경찰은 시위 초기에 최루탄을 사용하여 시민들을 해산시키려 하였고, 이 과정에서 한국기업이 수출한 최루탄을 비롯한 시위진압용 무기들이 사용되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고 확인 결과 사실로 드러남.
- 오메가 리서치 파운데이션과 국제엠네스티,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보도(2021년 3월 21일자)에 따





르면, 한국의 대광화공과 십자테크놀로지는 미얀마에 최루탄과 최루탄을 발사할 수 있는 총을 수출하였음. 대광화공은 2014년에 최루가스총에 장전해 발사하는 최루탄인 DK-N500·DK-38s를 18만9364발, 2015년에는 수류탄형태의 DK-44(sound,6BANG)와 DK-N500(empty)를 1만 9020발을 수출하였음. 십자테크놀로지도 2014년에 최루가스총인 SJ-102를 수출하였음. 2014년의 경우에 발사체와 최루탄을 동시에 수출한 것으로 보임.

## 스리랑카 시위대에 사용된 한국산 최루탄

- 스리랑카에는 2017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1건 등 총 2만7034발의 최루탄이 수출되었음.
- 스리랑카에서 2022년 2월부터 극심한 경제난으로 시위가 발생하였고, 점차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발생. 이 과정에서 정부는 최루탄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였고, 1명이 최루탄에 의해 사망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이 과정에서 한국산 최루탄이 사용된 것이 발견됨
- 시위대에 의해 쫓겨난 고타바야 대통령은 물론 이후 권력을 잡은 위크레메싱게 모두 국민들은 탄압하고 있음.
- 2023년 2월에도 위크레메싱게 정부는 시위대에 최루탄을 사용하며 진압함.



## 미얀마/스리랑카 최루탄 수출의 문제점

- 2014년과 2015년 당시 미얀마는 단계적인 민주화와 개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2015년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NLD가 승리하기 이전에 군부출신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한국산 최루탄이 수출이 이뤄진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한국의 최루탄이 미얀마를 포함하여 바레인과 터키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 대규모로 수출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은 2013년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루탄 수출은 계속해서 이뤄져 왔으며, 최루탄이 비살상무기라는 업체의 주장에도 불과하고 최루탄으로 인한 사상자

가 계속해서 발생

● 2014년 당시 미얀마 정부가 한국산 최루탄을 원한 것은 노동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실제로 2011년 이후, 미얀마에서 노동자들의 시위가 늘어남.

● 그리고 2014년부터 미얀마 한국업체에서 노동자들의 시위가 대규모로 발생하였고, 실제로 2015년 3월에는 한세실업 노동자들이 농성이 경찰에 의해 침탈당하는 등의 탄압이 있었음. 즉, 실제로 한국산 최루탄이 노동자 시위 해산에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한국업체에서 일하던 미얀마 노동자들이 한국산 최루탄에 의해 진압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임

● 스리랑카도 마찬가지임. 스리랑카 고타야바 정권은 고타야바 가문이 요직을 독점해오면서 국민들을 탄압하고 독재정치를 펴오고 있는 상황이었음. 이런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2017년부터 최루탄 수출허가가 계속 이뤄져 온 게 문제의 핵심임.

● 최루탄의 생산과 수출 자체도 문제이지만, 최루탄 수출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임

### 미얀마 군부에 판매된 한국산 군함

● 2019년,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미얀마 해군이 맺은 계약에 따라 대선조선이 건조한 모이타마 함이 미얀마 해군에 인도됨

●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전신인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미 2006년에도 미얀마 군부에 포탄제조설비를 불법 수출하여 사법처리를 받은 전력이 있음.

● 2017년에 미얀마 해군이 대규모 상륙함 건조계약을 대선조선에 제안했으나 방위사업청이 사업을 반려하였음. 그러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나서서 민간용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5개월 후에 다시 수출을 요청했고, 이를 승인함.

● 명백히 군함이 수출되었음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민간용 선박이라고 주장해왔음

### 군함 수출의 문제점

● 로힝야 학살이 있었고, 미얀마 군부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음에도 군함이 수출됨

●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신남방정책이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 이 군함수출에 대해 한국시민사회단체가 2020년 12월에 OECD가이드라인 한국연락사무소(NCP)에 진정을 제출했음에도 2021년 7월, 한국NCP는 이 군함수출이 로힝야족학살에 직접 연관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진정을 기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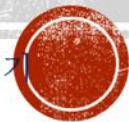
●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NCP가 미얀마에 한국 군함이 수출된 것에 대해 한국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준 것임.

# 한화의 장갑차는 누구를 죽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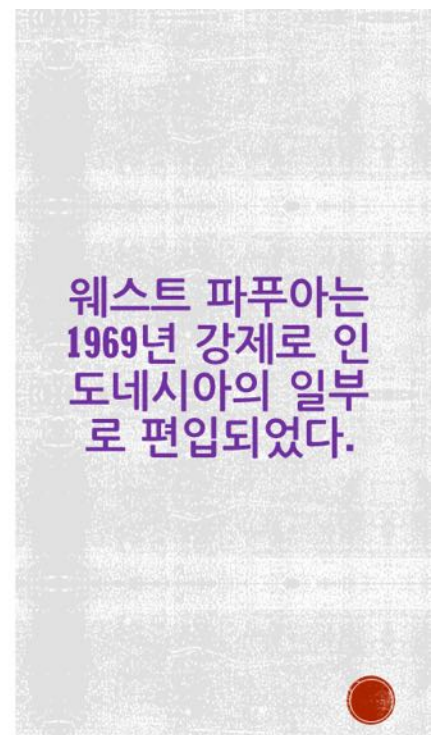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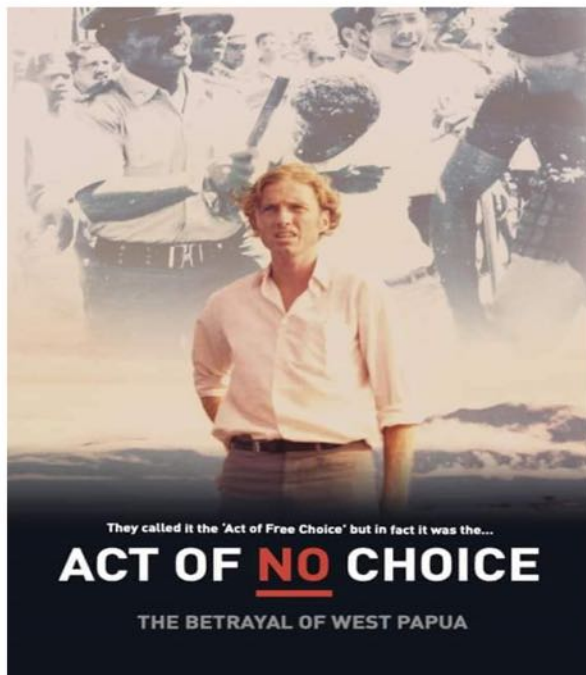
에스더 인권활동가, 웨스트파푸아

## WEST PAPUA

한국의 무기 수출과 웨스트 파푸아에서의 인도주의적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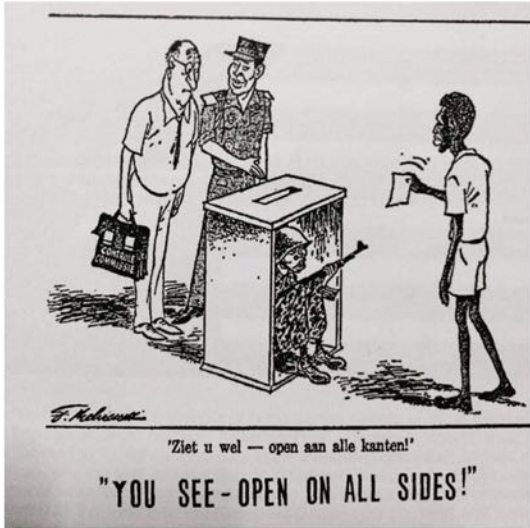
웨스트 파푸아는 어디에?





# HISTORY

##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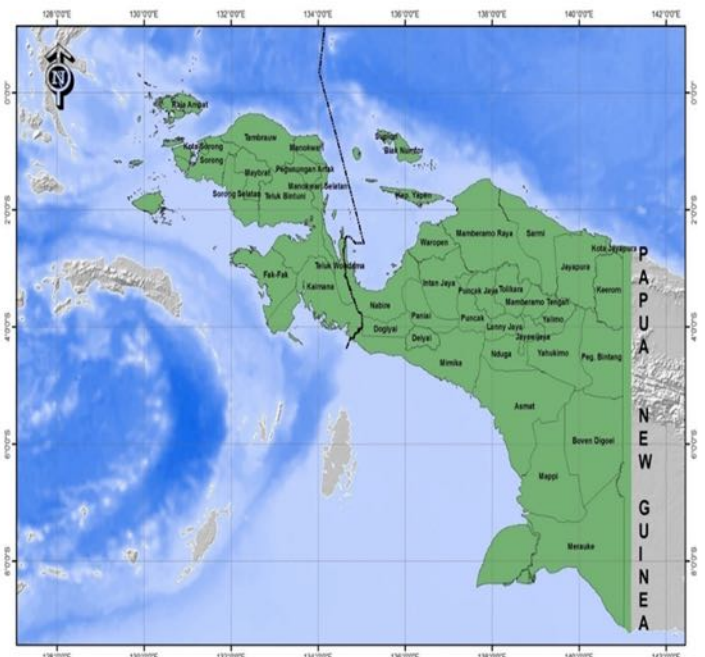


- 1963년 인도네시아에 의해 침략당했으며, UN의 관리 감독하에 행해진 Act of Free Choice라 불린 “가짜” 국민투표에 의해 1969년부터 법률상으로 인도네시아의 통치 하에 있게 되었다. 1,025명의 웨스트 파푸아인들은 공포와 협박 하에 투표를 했다.
- 안보상의 이유로 군사 작전 지역으로 설정된 웨스트 파푸아의 상태는 1970년부터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
- 인도네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프리포트 맥모란(Freepor Mcmoran) 1967년에 체결된 경제 계약은, 웨스트 파푸아 원주민들과 관계 없이 1969년의 국민투표를 통한 정치적 계약 이전에 발생했다.
- 국제 기자들은 웨스트 파푸아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 국내 실향민(IDP) 총계는 다음과 같다(약 69,000) : 은두가(Nduga)에서 46,000명 및 615명 사망(2018), 푼캅(Puncak) 2,724명(2021), 인탄자야(Intan Jaya) 5,859명(2021), 메이브랏(Maybrat) 1,836명(2022), 스타산맥 2,252(2021), 야후키모(Yahukimo) 1,971(2021) - 인도네시아의 웨스트 파푸아에서의 대규모 군사작전 때문이다.



## 중요한 사실들

- 높은 사망율, 심각한 인권 침해, 대량 학살, 생태계 파괴, 불법 살인 등
- 군사 작전의 두 가지 이유 : **국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British Petroleum, Freeport Gold Mining (US), South Korea (KORINDO))
- 국제 기자들과 UN의 진상 조사 팀은 웨스트 파푸아에 입경이 금지되어 있음
- 국내 실향민(IDP) 총계는 다음과 같다(약 69,000) : 은두가(Nduga)에서 46,000명 및 615명 사망(2018), 푼캅(Puncak) 2,724명(2021), 인탄자야(Intan Jaya) 5,859명(2021), 메이브랏(Maybrat) 1,836명(2022), 스타산맥 2,252(2021), 야후키모(Yahukimo) 1,971(2021) - 인도네시아의 웨스트 파푸아에서의 대규모 군사작전 때문이다.



## 군사 작전과 한국 기업들의 기여

- 군사주의와 채굴주의
- 퇴거와 불법 점유
- 한국은 현재 인도네시아에 무기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
- 웨스트 파푸아와 사업중인 한국 기업들 :
  - 코린도 그룹
  - 기아 / 현대
  - 한화
  - 대지정공
  - 대우조선해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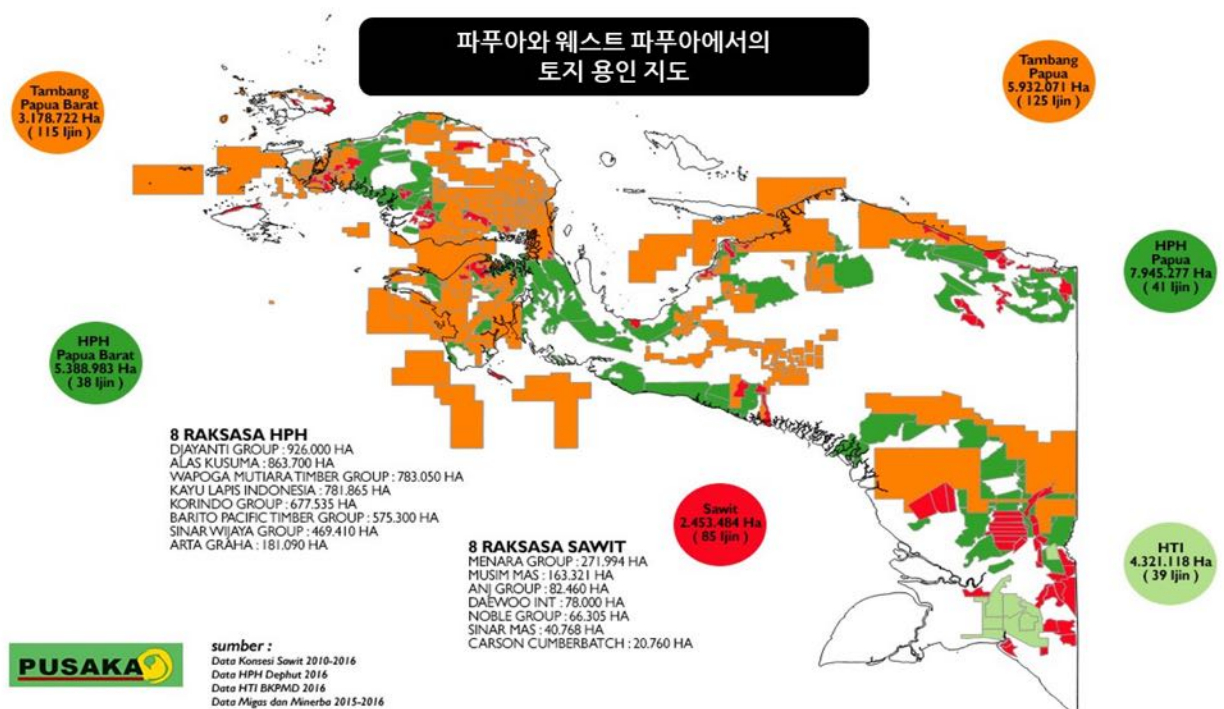


## KORINDO (KOREA INDONESIA)

- § 한국인 소유 (승은호)
- § 한국의 한 복합기업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숲을 벌목하고 있다.
- § 2009년부터 웨스트 파푸아로부터 용인을 연장받고 있으며 또한 대규모의 산림 사용권을 용인 받고 있다.
- § **산림 남획 : 불법 벌목, 팜유 플랜테이션, 식량 사유지 프로젝트를 위한 토지 포획.** 예 : (MIFEE: Merauke Integrated Food Energy Estate, 2010)
- § 이 그룹은 2만 5천 헥타르에 이르는 파푸아 숲을 개간하고 웨스트 파푸아에 세계에서 가장 큰 팜유 농장을 건설했다.
- § TNI(인도네시아군)는 서파푸아의 '식량단지'와 팜유 농장, 구획 벌목, 석유 굴착 장치 및 대규모 광산에서 공식적인 역할을 하며, 토지 파괴에 항의하는 원주민들로부터 이러한 프로젝트를 '보호'하고 있다.







## KIA-HYUNDAI

- ❑ 기아/현대의 KM250 트럭(K-511의 수출용 버전)은 웨스트 파푸아에서 병력, 수감자, 무기들을 운송하는데 쓰였다.
- ❑ KH178 견인곡사포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 HYUNDAI

- § 현대/기아는 인도네시아군에 견인곡사포 54문을 수출함.
- § Kostrad(육군 전략 예비 사령부)에 의해 현장 시험을 거쳤고, 105mm 포탄을 사용한다.



기아 KM420(K-131 소형전술차량 기본형)은 파푸아에서 2021년 사용되었다.



## HANHWA

- § 인도네시아에 있어 방위 산업 장비 전문 공급 업체
- § 한화는 SNT 모티브(방위산업체)와 함께 803정의 K3 기관총을 판매했다. 또한 현재 웨스트 파푸아에서 쓰이는 54문의 105mm 견인포와 105mm 고폭탄도 판매했다.
- § 인도네시아에 43대의 타란툴라 장갑차를 수출하였다.





# HANHWA

- § 두산 DST에서 2016년 제작된 44대의 바라쿠다 장갑차와 43대의 타란툴라 장갑차를 인도네시아에 판매했다.
- § “폭동 진압용” 바라쿠다 장갑차는 웨스트 파푸아에서 저항 운동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친숙하게 볼 수 있다.
- § 현재 웨스트 파푸아에서 쓰이고 있는 K3 기관총 803정을 판매한 바 있다.



## ■ 한화의 김승연 회장



## DAEJI P & I(대지정공)

- § CEO: 조효상
- § WOLF, TAMBORA, PROMOTER 세 가지 차량들은 웨스트 파푸아에서 평화적 시위를 해산하고 진압하는데 쓰이고 있다.



- § 울프(DAPC-1)는 8명의 병력이 탑승 가능하다.
- § 2013년부터 BRIMOB(Gegana)에서 사용중.  
(BRIMOB : 기동여단부대. 경찰 산하의 특수작전 부대로서 준군사조직이기도 하다)



## 대우조선해양

- CEO (박두선)
- 최근 한화에 매각되었다.

§ 인도네시아와 DSME 1400 잠수함 3척 발주 계약을 체결하였다(약 10억 8천만 달러).



## S&T 모티브와 다산기공

§ **K2** 돌격소총

§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인도네시아는 806정의 **K2** 소총을 구매했다.



§ **CEO: KIN HYUNG CHUL**(대표이사 김병학)





##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된 차량들



## 웨스트 파푸아의 현재 상황



# 지금 언론의 자유는 없다!



## WHAT WE NEED TO DO



- 한국 기업들은 우리의 피와 불행으로부터 이윤을 얻는 행동을 중단하라.
- 웨스트 파푸아에서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증폭시켜서 우리와의 연대 해 달라.
- 인도네시아 정부에 압력을 가해서 웨스트 파푸아에 국제 진상 조사단의 접근을 개방하고, 기자들이 웨스트 파푸아에 입경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유엔은 국내 실향민(IDP)와 난민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위중한 상황으로서, 인도주의적 위기는 내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웨스트 파푸아인들을 살해하는 인도네시아 군(TNI)과 인도네시아 경찰(POLRI)에 대한 훈련과 무지기원을 중단하라.



결국 우리는 적들의 말이 아니라  
친구들의 침묵을 기억할 것입니다!

Marthin Luther King Jr.



WAA....WAA...WAA !



# 무기 수출국과 수입국 민중의 연대

젤다 Wage Peace 활동가, 호주

## War on West Papua

International solidarity to end the arms trade

## 웨스트 파푸아 전쟁

무기 거래 종식을 위한 국제 연대

Wage Peace works in solidarity with peaceful people everywhere. Our focus is the First Nations people of West Papua and Austral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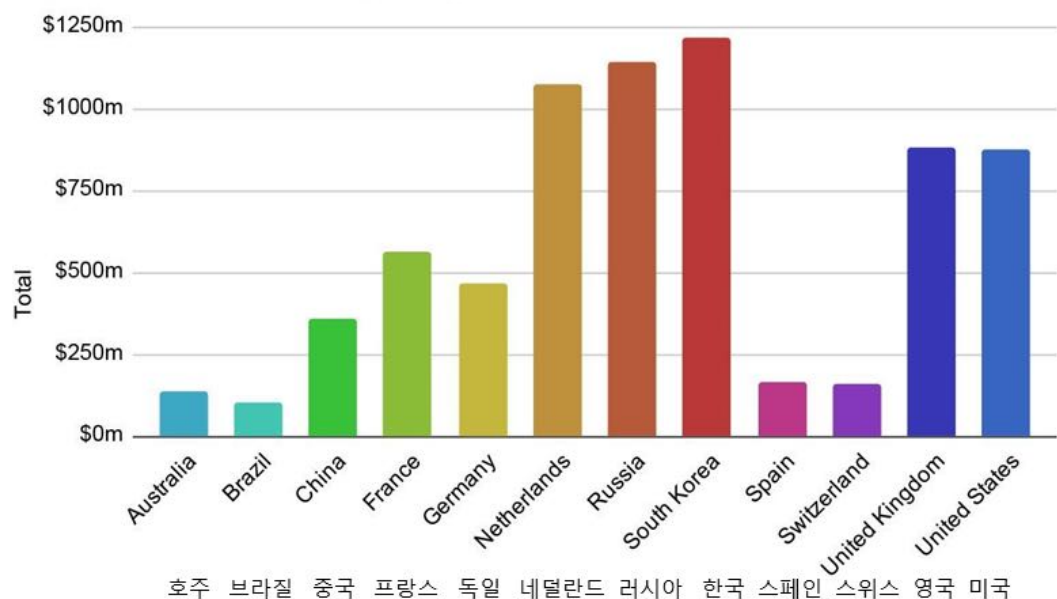
Weapons made in wealthy countries - Australia, Korea, Germany, France, Russia, China, the UK and especially the United States - are mostly used, by armies, against people in the majority world.

웨이지 피스는 전 세계의 평화주의자들과 연대하여 활동한다.

우리의 초점은 웨스트 파푸아와 호주의 선주민들이다.

호주, 한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중국, 영국, 특히 미국 등 부유한 나라에서 만들어진 무기는 대부분 군대에 의해 대다수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사용된다.

지난 1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무기를 수출한 상위 12개 국가  
Top 12 countries selling weapons to Indonesia over the last 10 yrs



First Nations peoples, who protect 80% of the earth's wilderness, are being murdered and driven from their lands by weapons produced in these countries.  
Black people are being murdered by police, in their own countries.  
The corporations profit.  
Everyone else suffers.

지구 야생의 80%를 보호하는 선주민들이 이 국가들에서  
생산된 무기에 의해 살해되고 땅에서 쫓겨나고 있다.  
흑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경찰에게 살해되고 있다.  
기업이 이익을 얻는 동안  
다른 모든 사람은 고통받는다.

It is everyone's responsibility to end the arms trade and bring peace.  
We are in solidarity because we feel connection with our planet and the people  
who care for it.  
Solidarity is a powerful expression of love.

무기 거래를 종식하고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우리는 지구와 지구를 아끼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기에 연대한다.  
연대는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다.



Karrinjarla Muwajarri



**NIOA**  
**STOP**  
**ARMING**  
**THE**  
**INTERVENTION**

Solidarity with the First Nations peoples of Australia is our first concern. Police guns kill. When Uncle Ned from Yuendumu called for a CEASEFIRE, we listened.

호주 선주민과의 연대는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이다. 경찰의 총은 살인을 낳는다. 유엔두무의 네드 아저씨가 휴전(사격 중지)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귀를 기울였다.



We invited Uncle Ned to join us for Disrupt Land Forces 2022. We all went to NIOA, the company that makes bullets for police.

우리는 네드 아저씨를 랜드포스 방해행동 2022에 초대했다. 우리는 경찰용 총알을 만드는 회사 NIOA를 방문했다.



Uncle Ned is speaking to the weapons maker NIOA. NIOA makes bullets for Australian police. Bullets made by NIOA kill First Nations people in police shootings.

David is up a ladder, holding an amplifier, so that NIOA can hear Uncle Ned's voice.

네드 아저씨가 무기 제조업체인 NIOA에게 말하고 있다. NIOA는 호주 경찰을 위한 총알을 만든다. NIOA가 만든 총알은 경찰 총격 사건에서 선주민들을 죽인다. 데이비드는 NIOA가 네드 아저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앰프를 들고 사다리에 올라가 있다.



경찰용 총알을 만드는 NIOA



NIOA는 경찰 총격에서 이익을 얻는다

**'DEFENCE' INDUSTRIES:  
THE LAST BASTION OF**

**RACIST  
VIOLENCE**  
+  
**TOXIC  
MASCULINITY**

‘방위’ 산업:  
인종차별 폭력 + 해로운 남성성의  
마지막 보루

**#DISARMPOLICE**

**#STOPKILLINGUS**

**#CEASEFIRE**

#경찰을 무장 해제하라  
#우리를 죽이지 마라  
#휴전(사격 중지)하라



In April we put up a blockade at the NIOA bullet factory. We stopped work at the factory for 9 hours.

4월에 우리는 NIOA 총알 공장을 봉쇄했다. 9시간 동안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We locked a broken car to the gates. No workers could get into the factory.

We made improvements to their signs.

고장난 자동차로 정문을 막았다. 작업자들은 공장에 들어올 수 없었다.

우리는 표지판을 고쳐 썼다.



THALES is the other company at this factory complex. Thales makes bombs and missiles. They sell these weapons, and many other weapons, to the Indonesian military.

탈레스는 이 공장 단지에 있는 또 다른 회사이다. 탈레스는 폭탄과 미사일을 만들고, 많은 무기를 인도네시아 군에 판매한다.





These posters remember some of the people who have been killed by the Indonesian military in West Papua. We take these posters wherever we go.



웨스트 파푸아에서 인도네시아 군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포스터. 우리는 어디를 가든 이 포스터를 가지고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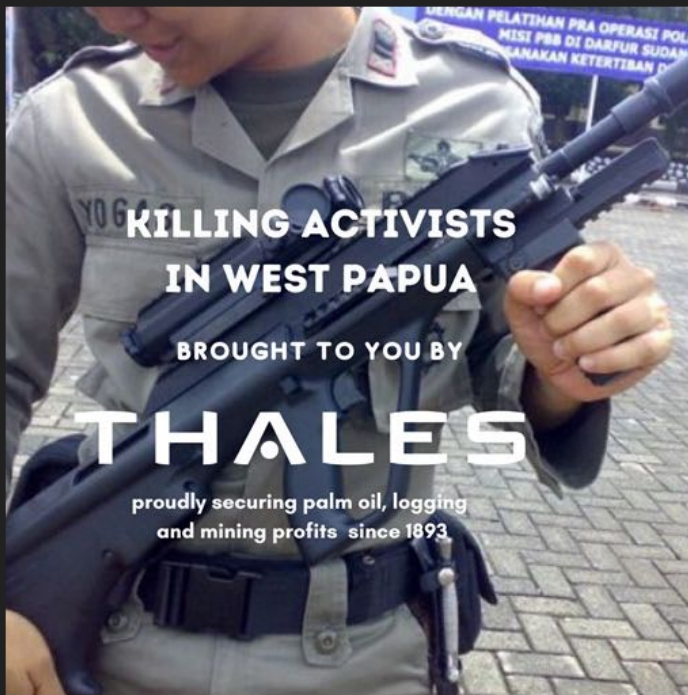
**THALES**  
**UNTUNG MU,**  
**MATI KU**



**YOUR PROFITS**  
**KILL US**

Thales is a French multi-billion dollar weapons maker. Thales exports guns, bombs and combat vehicles to the Indonesian military. Thales weapons have been used in West Papua for forty years.

탈레스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랑스 무기 제조업체다. 탈레스는 인도네시아 군에 총, 폭탄, 전투차량을 수출한다. 탈레스 무기는 웨스트 파푸아에서 40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



Thales makes some of their weapons in Australia. This gives Australian activists the opportunity to take direct action to slow down the production and export of weapons into West Papua.

탈레스는 일부 무기를 호주에서 생산한다. 그래서 호주 활동가들은 무기 생산과 웨스트 파푸아로 수출을 늦추기 위해 직접행동에 나설 수 있었다.

**THALES**

**RECALL YOUR BOMBS**

**FZ 68 ROCKETS**

fired at villages in

**WEST PAPUA**



We have been to THALES facilities offices and factories many times.

Thales really doesn't like us.

우리는 탈레스 사무실과 공장에 여러 번 방문했다.

탈레스는 우리를 정말로 싫어한다.





Thales occupies stolen land, including Kokatha land. Aunty Sue is a First Nations elder from Kokatha country. Aunty Sue also joined us at Disrupt Land Forces in 2022. We all went to Thales.

탈레스는 코카타 땅을 포함해 훔친 땅을 점령하고 있다. 수 아주머니는 코카타 선주민 원로다. 수 아주머니는 2022년 랜드포스 방해행동에도 합류했다. 우리는 모두 탈레스로 향했다.





Boeing is the 3rd richest weapons corporation in the world - around \$35 billion per year. Boeing also exports to Indonesia. Boeing helicopters are harming people in West Papua right now. We visit Boeing a lot, too.



보잉은 연간 약 350억 달러를 버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유한 무기 회사다. 보잉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고 있다. 보잉 헬리콥터는 지금도 웨스트 파푸아에서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 우리는 보잉도 자주 방문한다.





We speak with our friends in West Papua. We speak with refugees from war in Australia. We speak with First Nations elders. We keep the communication o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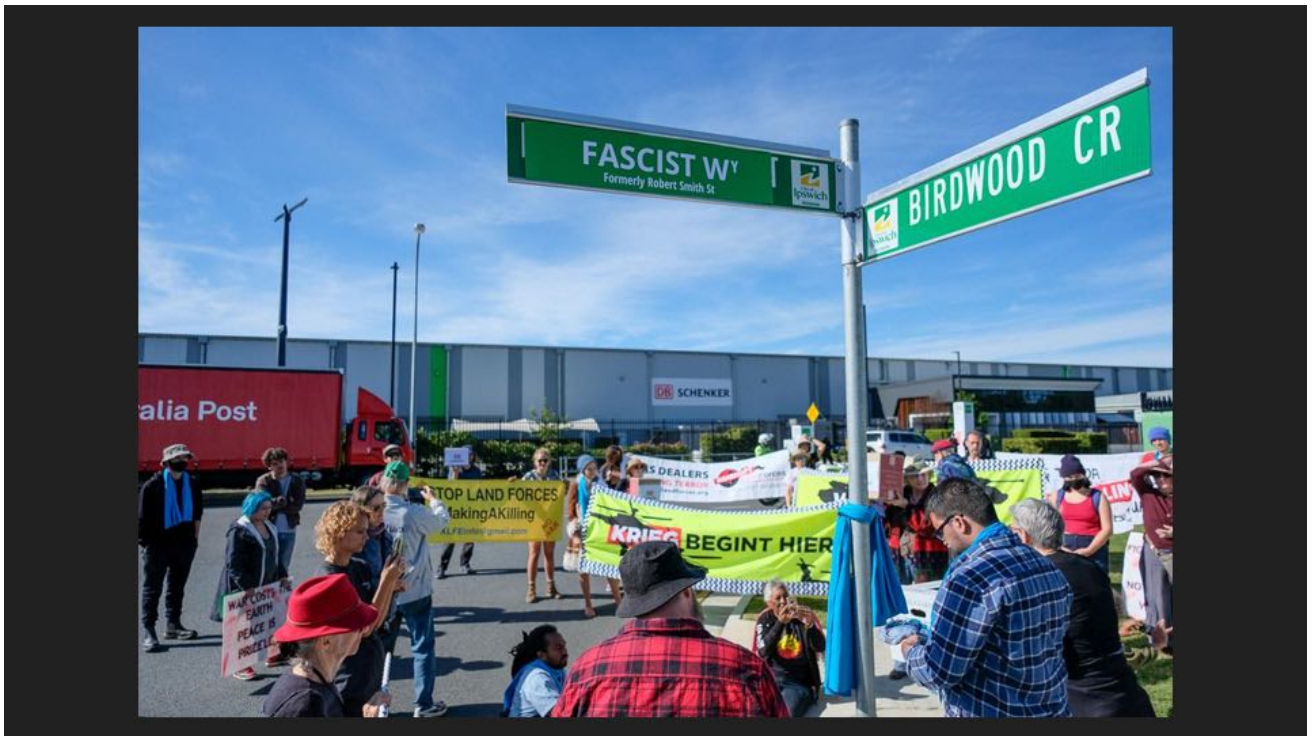
I don't have an answer to the problems of inequality, war and racism. I don't have any magic solutions. I only know that it feels good to act in solidarity, and it feels important to try.

우리는 웨스트 파푸아에 있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호주에 와 있는 전쟁 난민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선주민 원로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는 소통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

나는 불평등, 전쟁,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마법의 해결책은 없다. 다만 연대하는 것이 기분 좋다는 것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있다.















## 2부

# 교차성×무기거래

페미니즘과 무기거래 (젤다, 호주)

그린워싱과 무기거래-방위산업이 만드는 친환경전쟁  
(김한민영, 피스모모)

난민과 무기거래-살아있는 무기로 거래되는 감염인과  
비인간동물,난민화의 경로를 마주하고  
(아정,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IW31)

기후위기와 무기거래-폭격의 잭팟과 기후위기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우리는 왜 연결되어야 하는가 (오리, 전쟁없는세상)

## 페미니즘과 무기거래

젤다 Wage Peace 활동가, 호주

War = Peak Toxic Masculinity

peace, justice and feminism

전쟁 = 해로운 남성성의 정점

평화, 정의, 페미니즘



Toxic masculinity reaches peak toxicity in war. One man with a gun is dangerous, a thousand men with guns are a catastrophe.

해로운 남성성은 전쟁에서 정점을 찍는다.  
총을 든 한 명의 남성이 위험하다면,  
총을 든 천 명의 남성은 재앙이다.

War crimes including rape, torture, murder and incomprehensible acts of cruelty are not exceptional; they happen in every war, committed by every conquering army.

강간, 고문, 살인과 상상조차 힘든 잔혹행위를 포함한  
전쟁범죄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전쟁에서, 모든 정복군에 의해 자행된다.

Toxic masculinity constructs violent domination as a biological imperative, with the phallus as its primary weapon, rape and pillage as the right of the soldier.

해로운 남성성은 남근을 주 무기로 삼고  
강간과 약탈을 군인의 권리로 삼아  
폭력적인 지배를 생물학적 명령으로 구성한다.

Armies at war encourage the most toxic forms of masculinity imaginable. Sadists thrive in such environments while ordinary men suffer irreparable moral injury.

전쟁 중인 군대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해로운 형태의 남성성을 조장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가학성애자는 번성하고 평범한 남성은 돌이킬 수 없는 도덕적 상처를 입는다.

Feminism and peace activism reject the notion that men are inherently violent. The death cult of militarism is cultural not biological. Militarism is a constructed form, built around the body as abject and nature as object.

페미니즘과 평화 운동은 남성이 본질적으로 폭력적이라는 관념을 거부한다. 군사주의의 죽음 숭배는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것이다. 군사주의는 비체(卑體)로서의 신체와 객체로서의 자연을 중심으로 구성된 형식이다.

Of course, war and militarism also have an economic underpinning: kill the humans and take the land.

물론 전쟁과 군사주의는 인간을 죽이고 땅을 빼앗는다는 경제적 기반도 있다.

As a cultural construction, militarism can be deconstructed, along with other social and political expressions of toxic masculinity. Peace work, feminism, anti-racism and climate activism have together begun this work.

문화적 구성물로서 군사주의는 해로운 남성성의 다른 사회적, 정치적 표현과 함께 해체될 수 있다. 평화 활동, 페미니즘, 반인종주의, 기후 운동이 함께 이 작업을 시작했다.

Here in this room, we know that the men in our lives are equally capable of care, empathy, gentleness, kindness and love.

이 방에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남성들도 똑같이 배려, 공감, 온화함, 친절, 사랑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All humans can express and experience nurturance and altruism. All humans will be better off when we can separate masculinity and manhood from weapons and violence.

모든 인간은 돌봄과 이타심을 표현하고 경험할 수 있다.  
남성성과 남성다움을 무기와 폭력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 때 모든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Ending ecocide, decolonizing, smashing patriarchy and dismantling the military-industrial death machine are all variations on a theme: the mission to restore harmony to earth and her peoples.

생태학살 종식, 탈식민지화, 가부장제 타파, 군사-산업  
살인 기계 해체 등은 모두 한 주제—지구와 인류의  
조화를 회복하는 사명—의 변형된 표현이다.

All of the mechanics of destruction intersect with each other.  
There is no such thing as a single issue. Patriarchy,  
militarism, extractivism, dispossession, capitalism, white  
supremacism, climate breakdown – they are all connected.

모든 파괴의 메커니즘은 서로 교차한다.  
단일한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가부장제, 군국주의, 채굴주의, 수탈, 자본주의, 백인  
우월주의, 기후 붕괴 등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So are we.

우리 또한 그렇다.





Patriarchy is a relic of a past age, a rotten carcass waiting to dissolve back into the earth.

가부장제는 과거 시대의 유물이며, 썩은 시체가 되어 다시 땅속으로 녹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We are the future.  
We will regenerate the earth and love her  
children.

우리가 미래다.  
우리는 지구를 재생하고  
지구의 아이들을 사랑할 것이다.







We are the storm and we are the rainbow,  
and we are here to dismantle the military-  
industrial death machine.

우리는 폭풍이자 무지개이며, 군사-산업  
살인 기계를 해체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 그린위싱과 무기거래 - 방위산업이 만드는 친환경전쟁

김한민영(뭉치) 피스모모 액션리서치팀장

## 방위산업이 만드는 친환경전쟁

김한민영 (뭉치)

피스모모 액션리서치팀장



## 무기박람회에서 만난 친환경 탄약



2021년 6월, 부산 MADEX의 풍산 부스

"저희회사제품이필리핀이나인도네시아로 많이 수출돼요. 알다시피 무장갈등이 많은 지역이니까. 근데 거기가 열대우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컴플레인온 거예요. 탄약에 섞여있는 납 성분 때문에 숲이 망가진다고요. 그래서 납을 빼고 탄약을 만든 거예요."

## 방위산업의 "ESG"

- 한국산업연구원 (2022), "최근 ESG 경영의 확산으로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의 ESG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 해외 투자 및 수출 금융에 있어 방산업체에 리스크가 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방위산업의 특수성에 맞는 ESG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사회적 분위기와 투자제하에 방위산업은 실제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 한화가 2020년 확산탄 사업을 KDI에 매각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상장기업들의 ESG 수준을 평가해 매년 등급을 발표하고 있음.

〈표 3-3〉 국내 주요 병산기업들의 ESG 리스크 대응 현황

	환경영향	사회영향	경제·환경·사회
공신	- ESO14000인증(경영시스템) 획득	- 대체수요자인 생산·판매 확대 - 분업체제 시정 가능	-
ESG 핵심영역	- 수주·영양관리제도 개발 - ISO10015 인증 - HACCP 인증 취득	- 협력업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ISO 인증 추진	- ESG 위원회 신설 - ESG 전략 설정 및 중점과제 이행 점검
인재개발	- 2040년 인종별 인력 - ESG인재(Diversity) - ESG인재개발 방안 마련	- 직무별 인력 분배·배치 - 영어·시뮬레이션 교육 -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ESG 위원회 신설 - ESG인재 교육·훈련 체계화
인재 개발 및 스페이스	- 자체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훈련 - 자체교육(4차) 관련 수주 - 가상·현실 VR/AR	- 세계화·글로벌 역량 강화 - 영어 Top5 교육 - 분업체제 도입 지원 -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	- 인재를 다양성 및 - 전문성 강화 - ESG 위원회 신설
인재 시스템	- 인종별 다양성 프로그램 - 인종·문화 다양성 - 인종·문화 다양성 프로그램	- 사내인재 교육 프로그램 - 해외 인종·문화 교육 - 중·장기, 자립형 상생 협력 기업 2곳 지원 - 동반성장 실행계획·추진	- ESG 경영관리시스템(ESG-OM) 운영
대주주 관계	- 자체교육 프로그램 - 주주관계 - 다자간 협력프로그램	- 상생협력 체계화 지원 - 동반성장 프로그램 지원 - ESG 경영관리 시스템(ESG-OM) 운영	- 주주관계 강화 - ESG 위원회 - 주주관계 강화 - ESG인재 교육·훈련
인재 중요성	- 자체교육 프로그램 - 주주관계 - ESG인재 교육·훈련	- 사내인재 교육 프로그램 - 해외 인종·문화 교육 - 중·장기, 자립형 상생 협력 기업 2곳 지원 - 동반성장 실행계획·추진	- ESG 위원회 신설 - ESG인재 교육·훈련 체계화
KRI	- ESG인재 교육·훈련 - ESG인재 교육·훈련	- 사내인재 교육 프로그램 - 해외 인종·문화 교육 - 중·장기, 자립형 상생 협력 기업 2곳 지원 - 동반성장 실행계획·추진	- ESG 위원회 신설 - ESG인재 교육·훈련 체계화
인재개발	- 인종·문화 다양성 프로그램 - 인종·문화 다양성 프로그램 - 인종·문화 다양성 프로그램	- 사내인재 교육 프로그램 - 해외 인종·문화 교육 - 중·장기, 자립형 상생 협력 기업 2곳 지원 - 동반성장 실행계획·추진	- 주주관계 강화 - ESG 위원회 - 주주관계 강화 - ESG인재 교육·훈련

주: 1) 미국 카네기멜론 대학 소프트웨어공학연구소(Software Engineering Institute, SEI)가 개발한 조직 프로세스 개선 및 평가 모델.

## 방산기업의 ESG 대응 방향

- 환경적 측면: 친환경 제품 개발, 대체에너지 활용 등
- 사회적 측면: 대량 살상 무기매각, 살상력이 낮은 대체소재 사용, 분쟁 관물 사용 금지 등
- 지배구조 측면: ESG 위원회 신설, 지속가능 보고서 출간, ESG 지표 구축 등

(한국산업연구원, 2022)

p95, 국내 주요 방산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와 발전과제 (한국산업연구원, 2022)

## 방위산업의 "ESG"

〈표 5〉 국내 주요 방산기업의 ESG 평가 등급

등급	주요 기업	주요 사례
A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G넥스원, 대한항공, 기아자동차, 현대위아, HSD엔진, 한국조선해양 등	- 한화: 집속탄 사업 매각, 시제품 DX화 - LIG 넥스원: 수소연료전지 드론 등 친환경 동력제품 개발, ESG위원회 신설 - KAI: 스마트팩토리 적극 활용, KF-21 등 시제기 DX화 - 풍산: 분장제기 광물 사용 근절, 재래식 탄약 생산에 안전소재 사용, 대구경 탄약의 확산 범위 축소
B+	풍산, 현대로템, 대우 조선해양, STX엔진, 한국카본 등	- 한화: 집속탄 사업 매각, 시제품 DX화 - LIG 넥스원: 수소연료전지 드론 등 친환경 동력제품 개발, ESG위원회 신설 - KAI: 스마트팩토리 적극 활용, KF-21 등 시제기 DX화 - 풍산: 분장제기 광물 사용 근절, 재래식 탄약 생산에 안전소재 사용, 대구경 탄약의 확산 범위 축소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주: 2020년 기준 A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의 수는 108개사로 전체의 14.2%를 차지.

p.29, 방위산업의 ESG 리스크와 대응방안 (한국산업연구원, 2022)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게 'Protect'는 인류와 지구를 지키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가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Protecting Human-beings, our Earth and our Future generations by building a better and prosperous environment.  
That is what 'PROTECT' means to Hanwha Aerospace.

- 2021년, 한화그룹, 지속가능보고서 통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 선언. 한화그룹 ESG 위원회 설립 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포함한 각 상장 계열사에도 별도 ESG 위원회 운영 중
- R&D: 항공엔진 작동시의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전기식 항공기 개발, 고효율 항공엔진 부품 제작 등
- 온실가스 관리: 2025년까지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5% 목표
- 환경부와의 녹색구매 협약 체결 후 친환경 공급망 관리 및 친환경 제품 생산 (녹색구매 실적: 89백만원)
- UN 지속가능발전목표 (UN SDGs)를 이루기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에너지 관리 역량 강화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전기기반 UAM 개발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속가능보고서 2021, 2022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임직원 업사이클링 캠페인: 페플라스틱으로 만든 인형을 아산, 창원 등 사업장 인근 지역아동센터에 기부. 출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열종뉴스 기후뉴스 기후영동 글로벌, 지금

뉴스 > 기후뉴스 > 기후와 경제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첫 지속가능보고서에 담긴 내용

▲ 남우환 기자 · 2021.11.22 14:36



기후위기 독립언론 <뉴스핌>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지속가능보고서 보도

## LIG NEXI



LIG NEXI이 개발 중인 수소연료전지 기반 드론

- 2021년 ESG 위원회 신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전략과 목표 설계
- 에너지 사용 절감,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온실가스 배출 관리, 녹색구매 등
- 수소연료전지 기반 수송 드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선정(총 사업비 443억원 중 국비 230억, 지방비 443억 투여) 군사작전 중 군수품과 비상물품 보급용 드론으로, 해오리장을 염두에 두고 활발히 개발 중.

## 현대로템



2021년 서울 ADEX에서 처음 공개된 현대로템의 디펜스 드론. 출처: 현대로템 홈페이지

- 기후변화 대응 위한 탄소중립 정책 수립: 자원순환성 향상,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을 위한 연구개발, 시설투자 진행 중.
- 친환경 기술 홍보: 2022년 한국군에 납품된 다목적 무인차량-경유가 아닌 배터리 이용, 수소연료전지 기반 디펜스 드론 등
- 지속가능보고서-탄소절감, 녹색구매, UNSDGs 기여

## “친환경 전쟁”이 온다



- ESG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만날 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방위산업 호조, ESG 프레임도 바뀌고 있다
- :비윤리적인 투자영역이라 여겨지던 방위산업, 전쟁발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산업이라는 이미지가 획득.

## 방위산업과 이별하지 않으면 기후정의는 없다



- 군사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가 시급하다
- :군사부문은 탄소집약적이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관측에 있어 중요함. 군대의 탄소배출보고 의무 문제에 있어 국가안보가 이용되어서는 안됨. (갈등과 환경관측소 \_Conflict and Environment Observatory)
- :전쟁과 군사주의가 야기하는 기후영향 고발→방위산업 그린워싱의 효과가 약화될 수 있음
- :국제적 차원의 연구조사와 애드보커시, 직접행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전쟁 책임자들과 방위산업체에 에코사이드 책임을 묻기
-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이 배출한 탄소의 양 약 1억 tCO<sub>2</sub>e (2022년 11월 기준, Initiative on GHG accounting of war). 같은 기간 네덜란드의 총 배출량보다 많음.
- :우크라이나 내 124 헥타르의 자연보호구역이 전쟁의 영향 아래 있음. 산불, 토지 오염,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등 전쟁의 환경파괴 (Ecoaction, Greenpeace, 2022)
- : 분쟁지역 인권침해에 대한 방위산업체의 책임은 주로 UN 기업과인권 가이드라인,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 등의 프레임워크 활용해서 물어옴 (+ 개별국가 국내법). 방위산업체의 환경파괴에 대응하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필요.
- 방위산업 ESG 공략할 시민사회의 전략이 필요하다
-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이 중요해진 것은 기업의 비윤리적 활동과 반인권/환경 정책에 최소한의 규제와 제동을 마련해 온 시민사회의 성과이기도 함. 산업계가 ESG를 각종 위성에 사용할 때, 이에 대응할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
- :전쟁 중 방위산업의 위상이 높아지며 방위산업 투자제한을 완화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음. 면밀하게 감시해야 함.
- 전쟁과 군사주의는 '모두'의 문제: 기후운동과 평화운동의 적극적 결합이 필요하다
- :“전쟁도 못 막는데, 기후위기는 막을 수 있겠어?” 안전에 대해 새로운 질문을 던지자
- :오는 가을, StopADEX 캠페인에서 만나요~

# Let's stop WARMing



## 참고자료

- 한국산업연구원 (2022), 국내 주요 방산제품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와 발전과제
- 한국산업연구원 (2022), 방위산업의 ESG 리스크와 대응방안
- 2021, 2022 한화에어로스페이스지속가능보고서
- 2022 현대로템 지속가능보고서
- 현대로템 블로그 <https://blog.hyundai-rotem.co.kr/703>
- LIG NEXI 홈페이지
- LIG NEXI 사보 근두문 (2023년 5월호), 방산회사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고?
- Conflict and Environment Observatory (2022), A framework for military greenhouse gas emissions reporting
- Initiative on GHG accounting on war (2022), Climate damage caused by Russia's war in Ukraine
- Amnesty International (2019) Outsourcing responsibility: Human rights policies in the defence sector
- Greenpeace (2023), Greenpeace and Ecoaction launch map of environmental destruction caused by Russia's war in Ukraine



# 난민과 무기거래 - 살아있는 무기로 거래되는 감염인과 비인간동물, 난민화의 경로를 마주하고

아정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IW31

## 프롤로그

전쟁없는세상 스무 살 생일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무기거래와 난민’이라는 주제로 간단한 토론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박한 축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이르면 좋겠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어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우선, ‘무기’, ‘거래’, ‘난민’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구체적인 개념으로 동시에 확장된 개념으로 다루기 위해 몇 가지 사례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여러 기업이 판매한 무기가 국경 너머 어딘가에서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거나 살상을 위해 전쟁에 직접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 기업이 판매한 무기로 파괴된 마을과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의 일부가 한국에 들어와 난민신청자가 되었다는 관련성을 제시하는 논의는 이미 전쟁없는세상의 활동가들이 그간 잘 정리해 주신 자료와 글, 공론장으로 어느 정도 갈음되어 온 궤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이나 탱크, 전투기로 상상되는 ‘무기’ 너머에 인간/비인간 동물이 ‘살아있는 무기’로 동원되는 현실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러시아의 교정시설에서 HIV감염인의 취약성이 징집을 위해 거래되거나 군견 훈련소에서 개의 후각적 특이성이 군수품으로 거래되는 과정에서, 국경 안에서도 즉 자신의 국적국 내에서도 ‘난민화’되는 이들이 존재하며, 국가가 비인간동물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여 그들을 전쟁에 동원하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는 시

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취약성을 볼모로 잡힌 HIV 감염인 수형자들의 참전

러시아 당국은 사면해 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HIV 감염인의 치료와 자가 관리를 위한 항바이러스제 제공을 6개월 복무의 거래 조건으로 제시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해 교정시설에서 약 5만여 명에 이르는 이들을 징집하였습니다. 이들은 인간방패로서 가망 없는 전장의 최전선에 바그너 그룹의 일원으로서 투입되어 대다수가 첫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HIV감염인에게는 빨간 팔찌가, C형 간염 환자에게는 흰색 팔찌가 채워져 ‘식별가능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었고, 부상이라도 당하는 날엔 감염에 대한 편견과 왜곡된 인식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어도 응급처치 대상에서 밀려났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이들의 신체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병기(兵器)로 동원되어, 집합적으로 전사할 위험이 가장 많은 병사들(cannon fodder)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HIV 감염자임을 보여주는 빨간 팔찌와 C형 간염 환자임을 드러내는 하얀 팔찌를 찬 러시아 군인(사진출처: Mauricio Lima, The New York Times)

이들 중 죽음의 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아 우크라이나 군의 포로가 된 병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러시아의 교정시설은 HIV 감염인의 생존에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약물 공급을 박탈한 상태에서 항바이러스제와 사면을 약속하고 참전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특히, 치료제 없이 살아서 나갈 방도가 없던 장기수들이 대거 참전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이러한 사태를 마주하면서 “감옥에서 천천히 죽어가는 것과 전장에서 신속히 죽는 것 사이의 선택이었다”라고도 표현합니다.<sup>1</sup>

HIV 감염인에게 전장은 일상의 차별과 혐오의 연속선 상에 있는 장소이자 이를 정당화하는 낙인의 장(場)이 됩니다. 참전 이전에도 이들은 이미 사회에서 낙인에 맞서 다른 층위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Andrew E. Kramer, ‘A Quick Death or a Slow Death’: Prisoners Choose War to Get Lifesaving Drugs, New York Times(April 21, 2023).

## 군수품으로 동원되고 거래되는 비인간동물의 참전

살아있는 무기로 거래되는 신체는 인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여러 동물 중에서도, 개는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수행하는 자리에 놓여 군사노동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인간보다 몇 십 배 뛰어난 후각을 가진 개들의 특이성은 지뢰에 포함된 폭발성 물질과 금속, 플라스틱을 감지하는 용도로 동원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많은 개가 훈련을 거쳐 지뢰 제거 등 강제군사노동<sup>2</sup>에 본격적으로 투입되어 온 역사가 있습니다.

2022년 5월 8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두 달여 만에 러시아 군이 남긴 지뢰와 불발탄 등 200개가 넘는 폭발물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은 폭발물 탐지견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국가 훈장을 받아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패트론(Patron)이라 붙여진 그의 이름은 우크라이나어로 ‘탄약/총알’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젤렌스키는 패트론을 “작지만 아주 유명한 공병(工兵)이자 군사 엔지니어”로 묘사하면서, “이 개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긴박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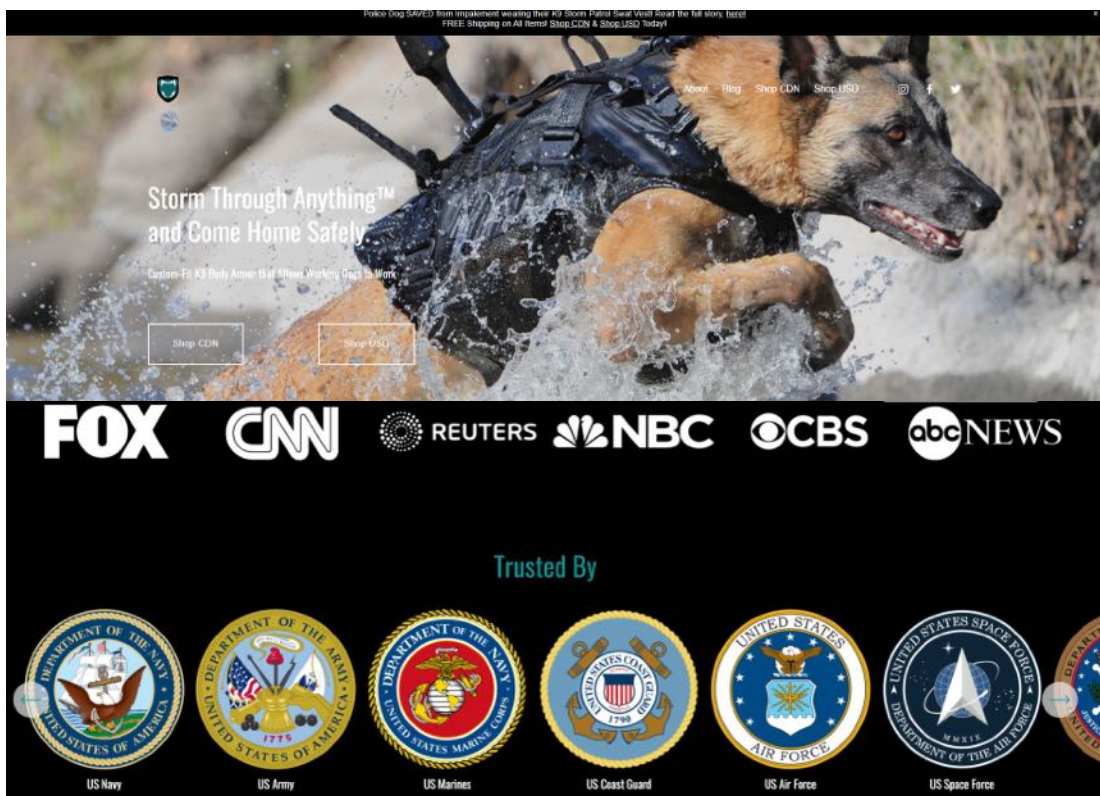
어린이들에게 지뢰 등 폭발물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의 자리에 함께 한 패트론(사진출처: 유니세프 홍보 화면 캡처) <https://www.unicef.org/ukraine/en/stories/dog-teaches-children-mine-safety> (최종검 색일:2023/03/15)

소셜미디어(SNS)에서 30만 명에 가까운 팔로워를 얻은 패트론의 조련사 일리에프(Mykhailo Iliev)가 공유한 동영상에서 패트론은 꼬리를 흔들며 신나게 폭발물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동영상을 시청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방탄 조끼를 입은 ‘귀여운’ 패트론이 폐허가 된 피해 현장에서 튀어나온 못과 부러진 철골 사이를 맨발로 누비며 감수해야 했던 위험 따위는 감지되지 않습니다.

통상 경찰견이나 군견은 K9으로 불립니다. K9은 ‘개의’, ‘개과의’라는 뜻의 canine과 발음이 같아서 생긴 호칭입니다. 폭발물 탐지견 패트론이 입은 방탄 조끼는 캐나다의 위니펙에 위치한 K9 Storm이라는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업체는 미국의 육해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국경수비대, 우주항공국 뿐만 아니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벨기에,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2 이 글에서는 징집된 병사들과 비인간동물에 대한 전쟁 동원을 ‘강제군사노동’으로 명명하기로 한다.

프랑스 군대에 군견 관련 용품을 납품합니다.<sup>3</sup>군견의 방탄조끼를 주력 상품으로 생산하는 K9 Storm은 말하자면 군수물자 제조업체인 셈입니다. 피터 싱어는 “새로운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y, PMC)들이 훨씬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전보다 다양한 고객들을 상대하게 되었다. ... 훈련, 병참, 작전 지원, 분쟁 종식 후 처리과정 등 모든 스펙트럼을 두루 포괄하며 여러 곳의 전시장과 전장에서 동시에 여러 광범위한 고객들을 위해 활동할 수 있을 만큼 다변화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sup>4</sup> 패트론과 같은 개들은 K9 Storm에서 제작한 방탄조끼를 입고 전장을 누비고, 전후 ‘복구’라는 명목 하에 폭발물 제거에 투입됩니다. 싱어의 스펙트럼에서 말하자면, K9 Storm은 작전 지원이나 분쟁종식 후 처리과정 등에 참여하여 이윤을 얻는 기업에 해당됩니다.



K9 Storm의 거래처들이 아래쪽에 나열되어 있다(사진출처: K9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군견의 안전을 내건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얼핏 보면 전쟁에 일조한다는 느낌보다는 평화에 기여한다고 생각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벌이는 전쟁에서 인간을 위해 사지에 던져지는 개들에게 방탄조끼를 입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는 한지, 거래를 위해 마치 개들의 안전을 위한 것처럼 구사되는 말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 이후의 복구작업이나 전쟁에 동원되는 비인간동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들은 드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원에 대비하여 비인간동물이 일상적으로 훈련을 강요당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위험 부담이나 부상, 사망, 사고 등에 대해서는 좀처럼 알지 못합니다.

3 <https://k9storm.com/> (최종검색일: 2023/03/15).

4 피터 W. 싱어 지음, 유강은 옮김, 『전쟁 대행 주식회사』, 지식의풍경, 2005년, 92-93쪽.



한국에서도 2013년 ‘동물보호법’ 개정과 2015년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군견훈련소에 서 퇴역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개들을 의학실습용으로 기증하거나 안락사 시키는 것이 금지되고 민간 입양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작전수행 능력이 없는 군견, 군마 등을 민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그때 ‘군견’과 ‘탄약’이 함께 ‘무상 양도’ 혹은 ‘무상대여’하기로 결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sup>5</sup>

- 군 작전상 체력과 감각이 떨어지는 군견과 군마를 민간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군장비의 수출 시 시범운용을 위해 탄약의 대여가 필요한 경우와 국가시책에 따른 탄약의 수출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탄약을 무상 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군대에서 개와 말은 ‘군인’이 아니라 탄약과 같은 ‘군수품’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구성원으로서 개들의 노고를 인정하려면 우선 개들은 군수품이 아니어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네 발의 전우’ 운운하면서도, 개들을 버리고 철수했던 베트남전쟁을 상기시킵니다. 미시간 군견기념관에 따르면, 베트남전쟁 중에 전장에 배치된 4,234명(命)의 군견이 1만여 명에 달하는 군인의 생명을 구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내려진 철수 명령에는 ‘불필요한 군 장비’로 분류된 개들을 두고 떠나라는 지시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개들을 남겨두고 귀환한 조련병들은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충격과 안타까움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sup>6</sup>



미시간 군견기념관(Michigan War Dog Memorial) 내 베트남 K9 기념벽(Vietnam K9 Memorial Wall) (사진출처:미시간 군견기념관 홈페이지)

어떤 작전이나 전쟁이 끝난 뒤 비인간동물들이 버려지거나 도살당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뒤에 장벽을 지키는 데 이용되었던 7천여 명(命)의 개들은 대부분 사살되었습니다. 분단선을 넘어 탈주하는 이들을 공격하도록 훈련받은 데다가, 서 베를린의 주민들이 이 개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sup>7</sup>

사고 팔리며 전쟁에 동원되었던 동물은 모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뒤늦게나마 이제껏 묻지 않았던 비인간존재들의 전쟁경험과 안부를 묻기로 합니다. 비인간존재의 전쟁경험

5 「퇴역 군견을 무상으로 양도합니다-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국방부 보도자료(2015년1월12일).

6 미시간 군견기념관 홈페이지 <https://mwdm.org/index.php/the-wall>(최종검색일:2023/03/15).

7 앤서니 J. 노첼라 2세 외, 앞의 책, 179쪽.

을 말한다는 것은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역사에서 ‘장소-없는’ 혹은 ‘장소를 빼앗긴’ 존재들의 곁에 서는 실천이자, 그들과 함께 살아갈 장소를 탈환하는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 국적국 안에서도 ‘난민화’되는 존재들의 대리노동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유엔 협약’(이하, ‘난민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근거 있는 우려로 인해,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우려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민의 정의만으로는 앞서 언급한 러시아 당국에 의한 HIV 감염인 수형자의 징집 과정처럼 국적국 안에서도 국가의 보호는커녕 사지로 내몰리는 이들의 ‘난민화’ 과정은 물론이요, ‘불필요한 군 장비’로 전장에 버려진 군견들의 전쟁 경험 또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지점은 유엔협약에서 정의하는 ‘이러저러한 자가 난민이다’라는 난민의 ‘규정’에 대한 논의가 아닙니다. 난민은 어떤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겪게 되는 ‘국가-없음’의 ‘상태’ 혹은 ‘사태’를 ‘난민화’라고 부를 수 있다면, ‘누가’ 난민인 지가 아니라, ‘어떻게’ 난민이 되는 지 그 경로를 문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난민의 자리를 만들어내는 권력의 메커니즘, 즉, 비국민과 국민, 난민과 시민, 비정상과 정상, 인간과 비인간존재를 구분 짓는 힘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난민화’된 존재들의 궁극적인 바람이 국민으로 수렴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 안에도 ‘난민화’의 과정 속에 있는 이들이 존재하는 이상 그렇습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징집된 감염인들과 국가의 부름에 동원된 비인간동물들은 사실 ‘대리노동’을 강요당하는 자리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비스 이코노미』에서 소개된 바 있는 ‘대리노동’은 노동자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신체와 정신을 소모시키는 ‘죽음정치적 노동’이며, 노동이 수행될 때 혹은 수행된 이후에 노동자가 방치 혹은 대체되거나 살해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하여 자신의 신체를 위험한 공간에 던져 넣고 자신을 소진한다는 점에서 대리노동은 필연적으로 죽음정치적 노동이며, 죽음정치적 노동은 인종, 젠더, 계급에서 보다 낮은 층위의 존재가 그것을 대신하는 노동이 됩니다.<sup>8</sup> 여기에서조차 언급되지 않은 질병과 종(種)이라는 범주가 오늘의 논의에서 대리노동을 강요당하는 조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에필로그-난민을 양산하는 국가를 거절하며<sup>9</sup>

미 해군 244년 역사상 처음으로 베트남계 제독이 탄생했습니다. 이른바 ‘보트피플’ 출신인 후안 응우옌(60)이 미 해군의 각종 함정과 함포 등의 무기를 개발하는 해군무기체계사령부(NAVSEA) 부사령관

8 이진경, 위의 책 6~12쪽.

9 에필로그의 내용은 심아정, 「국민화의 폭력을 거절하는 마음」, 『난민, 난민화되는 삶』(갈무리, 2020년), 147~150쪽의 내용을 요약하였음.

에 취임한 것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소식은 ‘보트피플’ 출신 난민이 미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례로 각국에 보도되었습니다.

1975년 남베트남의 패망으로 베트남에서 탈출하려는 ‘보트피플’의 일부를 미국은 자국령 괌에 수용했는데, 당시 열 일곱 살이던 응우옌은 미 공군 장교 부부의 후원으로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받아 미국인이 되었고, 오클라호마주로 건너가 고교와 대학을 졸업한 후 미 해군 기술 장교로 임관했다고 합니다. 이후 26년간 함정 정비 등 군수 분야의 전문 기술자로 활약해 온 그는 미군에서 최고 영예로 치는 훈장들을 수상하며 충성심과 능력을 인정받아, 베트남계 미국인으로서는 처음 해군 제독에 오르는 ‘영예’까지 안게 되었습니다.<sup>10</sup> 다음은 그가 취임사에서 한 말의 일부입니다.

“해군에서 제독이 된다는 것은 크나큰 영예이며 미 해군 역사상 제독 계급장을 단 첫번째 베트남계 미국인이란 점에서 무한한 기쁨을 느낀다. ... 미국이야말로 우리(난민) 모두에게 희망의 신호등이다. 미 해군에 복무하는 것, 우리의 조국을 위해 군복무를 하는 것, 그리고 미국의 헌법을 지지하고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크나큰 영광이자 특권이다.”<sup>11</sup>



후안 응우옌 제독(오른쪽)이 2019년 10월 준장 진급 직후 선서를 하는 모습(사진출처:미 해군 홈페이지)

후안 응우옌은 시민권을 부여받은 보트피플이 국가적 의례와 다양성의 서사시에 등장하고, 미국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해 온 베트남 난민들과 그들의 후손은 미국이 새로운 이방인들과 전쟁을 벌일 때 미국의 군대와 사회로 편입되면서 진정한 미국의 구성원임을 인정받는다는 도식을 현실로 마주하게 된 사례입니다.

이처럼 ‘난민’이었던 자들이 경합하는 ‘시민’의 자리는 피해와 가해의 역사를 뒤집으면서 또다른 곳에서 난민을 발생시키며 국가 폭력에 가담하는 형태로 보장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난민’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하며 가까스로 확보한 ‘시민’의 자리가, 어디에선가 또 다른 이들의 ‘난민화’를 전제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라면, 그러한 시민의 자리, 국민의 자리에 대한 고민이 다시 시작되어야

10 김태훈, 「베트남 탈출한 ‘보트피플’ 소년, 미해군 제독됐다」, 『세계일보』, 2019년 10월 13일자.

11 김태훈, 위의 기사.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난민을 양산하는 ‘국민화’의 폭력을 휘두르는 국가를 거절한다는 상상력에서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기후위기와 무기거래 - 폭격의 잭팟과 기후위기

배보람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

## 여기 한 마을이 있습니다

한국의 여느 바다 마을처럼 바람이 몰고 오는 먼지를 막고, 태풍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마을 숲으로 가꾼 해송림에 숨은 아주 작고 오래된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이 그렇듯이 마을 주민들은 자신들의 마을과 그 곁에서 난 것들로 생활해왔습니다. 충남 보령 서해의 갯벌에서 조개를 캐서 팔았고, 또 먹었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마을 옆 개간지에서 쌀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어촌의 작은 마을들이 그렇듯이 이곳 역시 오랫동안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은 1990년대 후반까지 지하수를 마셨습니다. 주민들은 대체로 평생을 자연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대단한 생태적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삶 자체가 그렇게 꾸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자연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 안에는 오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은 종종 어떤 곳에서 오염과 더불어 사는 삶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곳은 때로 ‘암 마을’ 되기도 하죠. 충남 보령 갯배마을 마을처럼 말입니다. 이 사연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갯배마을의 역사를 잠깐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마을은 1962년부터 공군 사격훈련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1980년까지는 미8군의 사격장으로, 1981년에 한국 육군으로 이관되었다가 1991년부터 현재까지 공군 방공포병 사령부의 군사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바닷가

를 찾아오는 피서객이 많은 7, 8월을 제외하면 매달 꾸준히 군사훈련이 이어지고 길게는 한 달 내내, 훈련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연중 보통 150일의 훈련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91년 공군이 이 지역을 관리하면서부터 사격이 이뤄졌다고 하면, 총 32년간 사흘에 한 번꼴로 사격훈련이 주민들이 어장으로 여기는 마을 앞바다에서 이뤄진 꼴입니다. 여기 갯배마을 사격장에서는 수도권에 적군의 소형 무인기 침투에 대응하기 위한 대공방어 훈련이 주로 이뤄집니다. 마을 앞바다의 작은 섬 위로 작은 소형 모형 무인기가 날아오르면, 20mm 발칸포탄이 실사격 되어 무인기를 격추합니다. 적을 없애버리기 위한 ‘격멸훈련’이 시작되면 발칸포 1문당 500여 발, 6문의 발칸에서 20mm 포탄, 약 3,000여 발이 바다와 갯벌을 향해 떨어집니다. 이곳에서는 지난 2018년에 8만 6894발 규모의 훈련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2020년에 7만 9,994발, 2021년에 7만 9,227발이었습니다.<sup>1</sup>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을 합친 포탄의 수는 총 246,815개의 포탄이네요.

### 320,104개의 폭발물이 우크라이나에 떨어지다

320,104개. 우크라이나에서는 단 1년간 전쟁을 통해 32만 여개의 폭발물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sup>2</sup> 전쟁 일년을 지나며 전쟁으로 인한 생태학살의 기록을 정리하여 우크라이나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을 가디언지가 보도했는데요, 폭격으로 인한 오염이 국토의 1/3이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경작지의 40%가 전쟁으로 파괴되거나 오염되어 경작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절마다 철새가 찾아오는 흑해에서는 퇴각하는 러시아군이 매설한 지뢰가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32만 개의 포탄과 발사체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게 될까요?

### 폭탄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갈까

단 한 발도 빠짐없이 모든 포탄은 건물과 도시와 땅과 하천과 바다로 떨어집니다. 여기에는 불발탄도 포함되겠죠. 지난 2012년 환경부가 한국 보령 갯배마을의 환경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이 피부병이 걸린 물고기를 확인하고, 자신들이 기지때문에 암이 걸렸다고 주장하며 이뤄진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해양 퇴적물에서 화약 물질인 RDX가 검출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채취한 굴에서도 RDX가 검출되었습니다. 기준치를 넘어선 카드뮴이 연안의 굴과 어류에서 검출되고 지하수 오염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sup>3</sup> 환경부 조사 결과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해수 유통을 고려했을 때, RDX가 인근 해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어 해양퇴적물과 생물에 축적된 물질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된 점입니다. 이 RDX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사이클로나이트(cyclonite)’ 라고도 불리는 RDX(Research Department Explosive)는 1899년 독일에서 특허가 취득된 이후 폭약으로 사용되다, 2차 세계대전에서 본

1 이근평. 2023.01.16 [단독] 유,무인기 격추훈련, 문정부 9.19 군사합의 후 반토막. 중앙일보

2 “Ukraine has had to absorb or neutralise the impact of 320,104 explosive devices.” in The Guardian, 2023. 02.20. The ‘silent victim’: Ukraine counts war’s cost for natur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feb/20/ukraine-war-cost-for-nature-russia>

3 MBC. 보령 공군사격장 주변 오염물질 일부 검출. (2012. 03. 09) [https://imnews.imbc.com/news/2012/society/article/3032867\\_31034.html](https://imnews.imbc.com/news/2012/society/article/3032867_31034.html)

격적으로 무기화되었습니다. 폭발력이 매우 크고 점화 속도도 빨라 고폭 화약의 주성분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탄에는 RDX가 원료로 사용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합니다.<sup>4</sup>

## 폭탄의 잭팟이 터지다

지난 여름, 폴란드 잭팟이 터졌습니다. K-9 자주포사포, 전차 K2를 비롯한 국산 개발 무기들이 폴란드와 20조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잭팟이 터지자 한화에어로스, 현대로템과 같은 방산기업과 대한민국 정부는 축포를 들었습니다. K9은 서울에서 수원 혹은 인천국제공항정도까지의 거리를 포격할 수 있는 사격거리 40km에 18초에 세발의 포탄이 날아갈 정도로 사격속도도 좋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더 좋은 무기도 많지만 K9는 기능대비 가격이 비교적 낮는데, 그 실전능력도 이미 확인된 바 있습니다. 바로 2010년 11월 연평도 도발에서 K9으로 북한군 진지를 초토화시키며 국제시장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에 대거 판매되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이를 두고 ‘러시아를 둘러싼 K9 자주포 벨트’라 이름을 붙이며 대 러시아 군사 긴장에 있어 한국 무기의 위상을 보도합니다.

K9, 자주포벨트를 만들어낸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는 한화 에어로스는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알렸습니다.<sup>5</sup> 이러한 실적을 끌어 올린 것은 k9자주포를 비롯한 미사일 체계인 천무의 판매실적입니다. 방산매출이 전년대비 247%, 영업이익은 5107% 증가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이정도면 정말 잭팟이 터졌다고 말할만 하죠.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4월 24일, 전 세계의 국방비 지출이 신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하며 그 원인으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꼽았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국방비 지출이 전년대비 13% 증가하였는데, 이는 짐작하듯이 우크라이나 전쟁때문입니다.<sup>6</sup>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서 무기 구매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방산기업들이 이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화 에어로스가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히고, 수출주도 산업으로 방산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탄소중립의 포탄

한화에어로스는 지난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게 'Protect'는 인류와 지구를 지키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가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무기 생산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물 등 자원 이용 정보를 제시하고 친환경 제품 생산에 대한 청사진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정말 전기로 가동되는 전투기나 탱크, 잠수함을 곧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탄소중립으

4 김현수. (2006). 고폭화약 연구의 기술 분야.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44(5), 435-443.

5 <https://www.hanwhaaerospace.co.kr/kor/media/newsroom/view.do?seq=305>

6 SIPRI. 2023.04.24. “World military expenditure reaches new record high as European spending surges” <https://www.sipri.org/news/2023/world-military-expenditure-reaches-new-record-high-european-spending-surges-0>

로 생산된 무기가 사용되는 탄소중립의 전쟁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청사진에는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령 갯배마을 주민들이 탄피를 수거하며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빠져있죠. 여기에서 벌어지는 사격훈련에서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주민들이 건강피해를 겪으며 이를 병원에 오가며 발생시키는 탄소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이 파괴한 도시의 재건에 필요한 탄소 배출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무기가 오염시키는 갯배마을의 환경정화, 전쟁터의 복원에 필요한 것들도 따지지 않습니다. 제품이 생산, 소비, 폐기되는 모든 과정의 탄소배출을 확인하고 이 것들에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무기 생산은 과연 경제적인 것일까요? 무기의 값에는 파괴로 인한 복원의 과정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의 탄소배출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s of Ukraine)과 Carbon Limits, Climate Focus 와 같은 단체들이 전쟁 9개월쯤 군사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계하여 발표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안 한 온실가스 배출 추정치는 97,286 천tCO<sub>2</sub>e에 달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투는 우크라이나에서 재생에너지 단지가 밀집한 지역 위에서 벌어지고, 기후위기 대응프로그램이 운영되던 시설 인근을 배경으로 합니다. 전쟁은 어떤 경제활동 보다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또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한 국가와 시민들의 노력, 성과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고 악합니다.

## 전쟁과 기후위기

지난 3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제6차 기후 종합보고서를 발표하며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1°C 상승했으며, 온도 상승을 1.5°C로 제한하기 위한 절박한 노력이 사회 전 분야에서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공개되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가 얇은 얼음 위에 서 있고 그 얼음이 빠르게 녹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에도 군비 지출액은 역대 최고를 갱신하고 있고,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의 방산기업은 연이어 잣대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잣대와 축포와 폭탄이 동시에 터지는 군사활동의 기후위기에 대한 영향은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습니다.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각 국가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줄일 것인지를 계산하는 데 있어 군사활동은 여전히 예외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군사부분 배출량을 집계에서 제외해줬고 2015년 파리협정에서 이를 자발적 선택사항으로 두었습니다. 지난 2022년 SGR(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와 CEOBS(Conflict and Environment Observatory)는 전 세계 군사활동으로 인한 탄소배출량을 추정하여 발표했습니다. 그 양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5.5%를 차지하는데 이를 국가별 배출 순위로 세워보면 중국, 미국, 인도 다음으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



라에 위치하게 됩니다.<sup>7</sup> 전쟁이 하나의 국가였다면 파리 협정 이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계획과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해야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전쟁이라는 국가’는 지금까지 기후위기의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전쟁이 세계를 지켜준다는 착각

우리는 그동안 전쟁이, 우리의 세계를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군사기밀을 묵인했고 군사활동이 법과 규범 위에 있어도 인정했습니다. IPCC가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인류 전체의 노력의 호소에도 전쟁이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폭격을 맞고, 누군가는 잭팟과 추포를 동시에 터뜨리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더 많은 무기는 더 많은 폭격과 오염을 의미합니다. 무기는 건물과, 군사시설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국가적 역량, 시민들의 협력체계와 거버넌스도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한화에어로스의 2050 탄소중립 계획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무기가 생산되는 과정만이 아니라, 무기가 파괴한 것들의 재건과정의 탄소중립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7 CEOBS, 2022.11.10. "New estimate: global military is responsible for more emissions than Russia"  
<https://ceobs.org/new-estimate-global-military-is-responsible-for-more-emissions-than-russia/>

# 우리는 왜 연결되어야 하는가

오리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혹시 제목에 낚여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줄 알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께는 죄송합니다. 저는 정답을 알지 못하며 아마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을 듯 합니다. 저는 이 질문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차성이 중요하다고 당위적으로 얘기를 자주 하지만 그것은 왜 중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활동가로서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교차성의 관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붙들고 얘기를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교차성이 왜 중요할까, 왜 필요할까. 오늘은 전쟁없는세상의 2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니까 얘기를 저희의 경험에서부터 출발해볼까 합니다. 전쟁없는세상은 병역거부캠페인으로 시작한 단체입니다. 원래 전쟁없는세상 앞에는 ‘병역거부자들과 그 후원인들의 모임’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이 설명에는 어떤 젠더도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한국 사회에서 누가 군대에 갈 수 있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이 설명이 지극히 젠더적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만큼 전쟁없는세상이 20년 전 병역거부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젠더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병역거부에서 젠더 분석이 빠지면 그 운동은 마초적이고 영웅적인 남성성을 상징하는 병역거부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여성) 활동가들이 감옥에 가는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도를 만들어주는 운동으로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는 전쟁에 대한 저항자보다는 착하고 예의 바른 국가폭력 피해자 이미지, 그리고 그 옆에서 눈물짓는 후원자들의 이미지로 박제됩니다. 전쟁없는세상의 활동가들이 책으로 페미니즘을 많이 접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초창기 운동에서는 이 문제의

식을 잘 녹여내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언제 이 타이틀이 사라졌는지/사라지게했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사용했던 것은 아니라고 기억합니다. 오늘 자리는 어떻게 전쟁없는세상이 정신을 차렸는가를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전쟁없는세상이 젠더 교차성을 이해하고 운동에 녹이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병역거부자를 지지하는 운동에서 더 확장된 운동으로 변신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대체복무제 도입 캠페인을 이어가면서도 선택적 병역거부, 완전 거부, 여성병역거부 등 다양한 형태의 병역거부에 관해 말하고 군대 내 채식 선택권, LGBTI 군인을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운동에도 함께 했습니다. 또 군사주의의 또 다른 기동인 무기거래감시 캠페인을 전쟁없는세상의 새로운 캠페인으로 결정했고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운동,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 양심을 획일화하고 맹목적 충성을 강요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와 경례 반대 캠페인, 어린이·청소년 대상 전쟁교육인 군 나라사랑교육에 대한 반대 캠페인 등으로 활동을 확장했습니다.

교차성을 인지하지 못하면 군대에서 여군을 모집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자하는 일도, 군대에서 채식을 허용하는 일도, 군대가 쿼이프렌들리 해지는 것도, 무기회사들이 친환경탄약이나 탄소 배출 없는 장갑차 등을 만드는 행위도 칭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가가 전쟁을 벌이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예산을 배정해야 합니다. 제로섬 사회에서 군사예산의 증가란 당연히 다른 지출의 삭감을 의미합니다. 주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 쓰일 복지의 정책과 위축을 가져옵니다. 반전운동은 소수자인권운동, 사회복지운동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계급의 문제, 인종 문제, 이주민문제, 젠더문제 등이 다 연결이 됩니다. 또 전쟁은 제 정신으로는 찬성할 수없기 때문에 모두가 미쳐돌아가서 전쟁 아니면 해결책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연약한 어린이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면 없던 남성성까지 끌어올리도록 해 군대로 사람들을 동원해야 하며 국가 내 차이를 지우고 민족을 강조하며 단결에 호소합니다. 언론, 교육, 문화 등의 자원이 총동원됩니다. 반전운동이 교육적, 문화적 접근법을 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차성의 관점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사상적 수준에서 납득이 가지만 운동으로 실천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많이 우리들 사이에서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쟁없는세상의 경험에서 생각해 본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상호작용하는 억압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여러 차별을 잘 인식하고 대변해야 합니다. 반전운동 단체인 전쟁없는세상의 경우 군사화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 이 억압의 최전선에 있는 집단이 어디인지 잘 살피는 것입니다. 또 군사주의가 어떻게 인종주의, 가부장제, 성차별, 동성애 혐오를 전파하는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단체의 활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주, 정기적으로요. 우리가 해체하려고 하는 사회모순을 두고 우리 활동의 구조, 정치적 우선순위, 관행을 재평가해야 합니다. 교차성의 관점에서 우리는 잘 가고 있는가? 조직이 커지고 역사가 길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의 더 다양한 욕구와 관심사가 뒤엉킬 때 의사결정 구조는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면 좋지만 우리가 목표로 둔 사회모순을

해체하는데 꼭 필요한 활동이 아닌 것들도 어느샌가 많아집니다. 자칫하면 교차성의 실천까지 더해져 활동가들이 너무 많은 업무에 시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단체의 문화를 보다 다양하고 포용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양성은 잘못하면 갈등과 차별, 배제와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운동 단체에 엄청난 힘이 되는 자원입니다. 여의도의 정당들처럼 부분별로 대표주자를 쫓 앞세워 전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체 내 포용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운동의 조직화와 옹호활동에 적용해야 합니다.

전쟁없는세상은 최근 비전워크숍 마쳤고 이를 바탕으로 교차성을 고려한 업무개편을 진행 중입니다. 아 정확히는 6월에 전시까지 일단의 20주년 기념행사들을 마치고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위기와 군사주의의 연관성을 드러내는 활동이 될 것입니다. 현대의 전쟁은 기후위기를 낳는 석유 등의 화석연료, 식량, 식수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기후위기는 전쟁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후위기는 전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전쟁시기뿐만 아니라 소위 평화시기에도 군대, 방위산업체, 군사기지 등 각종 군사기구들은 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 합니다.

20년을 맞은 전쟁없는세상은 앞으로 보다 교차적이고, 국제적이며, 세대를 초월하는 단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후위기와 같은 거대한 운동에 발맞춰 함께 하는 것은 쉬운 임무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닌데 작년 연말 924기후정의행진 평가워크숍에 한 번 다녀오고 솔직히 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힘들었습니다. 와 어떻게 함께하지 이런 걱정도 많이 들었어요. 아마 문제는 어떻게 시너지를 내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협력을 유지할 것인가일 겁니다. 이를 위해 모두 같이 고민하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웠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Part1**

# **How are South Korean weapons being used?**

**Issues in South Korea's Arms Exports**  
(Jeewoo Yeo, South Korea)

**South Korean water cannons ruin democracy**  
(Netiwit Chotiphatphaisal, Thailand)

**South Korean tear gas to make Myanmar and Sri Lanka cry** (Hyunpil Na, South Korea)

**Who do Hanwha's armored vehicles kill?**  
(Esther Haluk, West Papua)

**Solidarity between arms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ies**  
(Zelda Grimshaw, Australia)

# Issues in South Korea's Arms Exports

Jeewoo Yeo World Without War

South Korea's arms exports ranked ninth in the world from 2018 to 2022 and have been hailed as a "new growth engine" for the country. South Korea's arms exports have grown from just under \$3 billion per year over the past decade to \$7.2 billion in 2021 and \$17.3 billion in 2022.

Exports cover land, sea, and air weapons. Hanwha's armored vehicles, K-9 self-propelled artillery, Chunmoo multi-launch rockets, Hyundai Rotem's K-2 tanks, Korea Aerospace Industries' (KAI) FA-50 light attack aircraft, LIG Nex1's Raybolt anti-tank missiles and Cheongung-II surface-to-air missiles, and Poongsan's ammunition are among the main exports.

## Problem 1: Exporting to conflict zones

There are two main problems with South Korea's arms exports. The biggest problem is that it deals with countries involved in conflict.

The US, Poland, Finland, Norway, Estonia, and Australia are among the countries to which South Korea has exported arms in the past five years and they have provided military aids to Ukraine. South Korean weapons are filling the vacuum left by these arms shipments. Weapons sold to these countries are directly or indirectly supporting Ukraine, which will prolong the war in Ukraine and leave



irreparable damage.

Saudi Arabia, the United Arab Emirates (UAE), and Egypt are countries intervening in the Yemeni civil war. The Saudi-led coalition has engaged in virtually indiscriminate bombing of Yemeni rebels as well as civilian facilities, resulting in numerous civilian casualti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cluding Amnesty International, are calling on all arms suppliers to immediately halt arms transfers and military assistance intended for use in Yemen.

The Philippines, Indonesia, India, Iraq, and Israel are countries involved in conflicts domestically and/or internationally.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in particular, are major importers of South Korean weapons. The Philippines has deployed FA-50 light attack aircraft to the ongoing Moro conflict in Mindanao. Indonesia is using Hanwha's Barracuda armored personnel carriers and Daeji P&I's water cannon vehicles to suppress the resistance of the people of West Papua to secession.

## Problem 2: Inhumane weapons

Another problem with the South Korean arms industry is that it produces and exports inhumane weapons. Cluster munitions and anti-personnel landmines are considered typical inhumane weapons due to their indiscriminate killing and high civilian casualties. Currently, the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is signed by 110 countries and the Mine Ban Treaty by 164 countries. Only a handful of countries are not party, including South Korea, the US, China, and Russia.

South Korea is one of 16 producers of cluster munitions. Two major South Korean arms companies, Hanwha and Poongsan, also produced and exported cluster munitions until at least 2012. Hanwha divested itself of its cluster munitions business in 2020 as part of a group-wide "social responsibility" initiative after it became an international problem and hindered its overseas business. However, it is deceptive for Hanwha to claim that it does not produce cluster munitions, but still produces and exports a cluster munition launch system, the Chunmoo.

The ATACMS, a surface-to-surface tactical missile that the South Korean military has fired several times in response to North Korean missile launches, also carries a cluster munition warhead. Whil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repeatedly stated that it has never used these warheads, the fact that they are deployed and practicing live-fire drills means that they are prepared to use inhumane weapons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It does not differ much from practicing the use of chemical weapons in case of an emergency.

South Korea is one of 11 landmine producers. Hanwha, a major manufacturer of landmines, exported approximately 2,000 Claymore landmines to New Zealand in 2005 and 2006. Hanwha also produced 4,000 KM74 landmines in 2011.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tated in 2019 that it had not produced

any landmines in the past five years, but did not comment on future production plans.

### Arms Fair, the Market of Death

Arms fairs have become the main medium for arms trade, especially in recent years. In South Korea, various arms fairs are held every year, including ADEX, a comprehensive arms fair, DX KOREA, a land arms fair, MADDEX, a maritime arms fair, and KPEX, a police arms fair. Here, land, sea, and air military and police weapons are disguised as “awesome” goods for the general public. The bigger problem is that it doesn’t end with a mere exhibition: at arms fairs, arms dealers and military officials from around the world meet each other for export consultations and actual contracts.

Last year, DX KOREA hosted “VIPs” from over 20 countries, more than half of which are involved in wars and conflicts. The ‘VIPs’ at arms fairs are agents of warring states. Arms fairs are all about inviting war criminals, feeding them expensive meals in five-star hotels at our expense, and giving them weapons to kill more people. Arms companies claim that their products are used for peace, not war. But in reality, they sell them knowing that they are used for war, armed conflict, and human rights abuses.

### War in Ukraine and South Korea’s arms exports

Since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n 2022,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ramping up their armaments, and South Korea’s arms exports have taken off, led by exports to Poland worth \$12.4 billion last year. A report from the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Economics says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war in Ukraine are an “opportunity of a lifetime” for emerging arms exporters like South Korea.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so far maintained a principled stance of “no lethal weapons to Ukraine.” However, President Yoon has repeatedly hinted at the possibility of providing arms to Ukraine. The “situation that is unacceptable to international community, such as large-scale attacks or massacres on civilians or serious violations of the laws of war,” which Yoon suggested as a condition for providing arms, has already occurred.

In addition, there are growing suspicions that South Korea is diverting 155mm artillery shells to Ukraine via the United States, Poland, and elsewhere. Last month, it was reported that U.S. intelligence agencies had intercepted internal discussions with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regarding arms shipments to Ukraine. In response, a spokesperson fo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said, “We are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U.S. on our support for Ukraine, but we cannot confirm any details.”

Arms supplies to parties to conflicts and wars cannot lead to peaceful resolutions. They do not meet the criteria of “peaceful purposes,” which is a condition for arms exports under the Foreign Trade Act an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t. The logic of “peace by force” - responding to force with

more force - cannot break the vicious cycle of the arms race. If South Korea truly wants to contribute to world peace, it should reconsider its arms aid to Ukraine and end its policy of expanding arms exports.

# South Korean water cannons ruin democracy

Netiwit Chotiphatphaisal Thailand



## Weaponized Thailand

Netiwit Chotiphatphaisal





## DISSOLVED THE PARTY, IGNORING VOCIES OF PEOPLE

the constitutional court dissloved the Future Forward Party THE KIDNAPPED OF WANCHARELM

an anti-monarchy activist who was allegedly kidnapped from Cambodia by Thai police officers. Adding to many other cases in which individuals been reportedly kidnapped



## THE TRICKY CONSTITUTION

It allows the senates whom selected by Junta to vote for Prime Minister and then The General Prayuth came to be Prime Minister once more.



16 Oct2020

The Day that Changes the Youths



SAFE ZONE AT POL SCI FACULTY



FROM SOUTH KOREAN

นำเข้าจากเกาหลีใต้ ราคา 25 ล้านบาท

เหล็กเคลียร์  
สิงห์คขวาง

ล้อกันกระสุน

คันละ 25 ล้านบาท

เปิดสมรรถนะรถฉีดน้ำแรงดันสูง "จิโน"

ตะแกรงป้องกัน  
กระจุกรอบคัน

เครื่อง DAEWOO

โซเชียลมีเดีย: @watchinnnews, ไลน์: @watchinn, เฟซบุ๊ก: watchinn

โคราชทีวี 27

## OPEN LETTER TO SOUTH KOREAN GOVERN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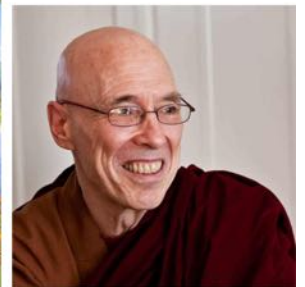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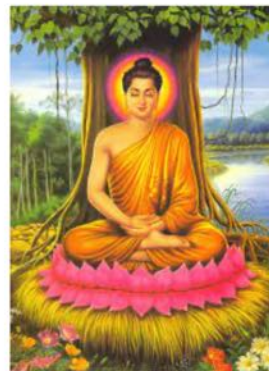
THE POLICE USED HIGH-PRESSURE WATER CANNON TRUCKS AS ONE OF THE TOOLS TO DISPERSE THE PROTEST. WHAT IS EVEN WORSE IS THAT THE POLICE USED TEAR GAS, WHICH IS DANGEROUS TO HEALTH, AGAINST THE PEACEFUL PROTESTERS. MORE THAN 300 DOCTORS HAVE CONFIRMED THIS INCIDENT.

AND MANY OF THEM WERE UNDER 18 YEARS OLD. (MANY WERE K-POP FANCLUBS).

THE TWO WATER CANNON TRUCKS USED IN THIS INCIDENT ARE NAMED "JINO" AND ARE FROM SOUTH KOREA, IMPORTED IN 2012 FOR 25 MILLION BAHT EACH. THEY HAVE THE ABILITY TO SPRAY WATER OVER A DISTANCE OF MORE THAN 85 METERS, HOLD MORE THAN 12,000 LITERS OF WATER, AND CAN ALSO BE FITTED WITH HIGH-FREQUENCY AMPLIFIERS AND WATER-SOLUBLE DYES.

THEREFORE, I WOULD LIKE TO CALL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PEOPLE OF SOUTH KOREA WHO SEEK HUMAN RIGHTS AND DEMOCRACY TO STOP SUPPORTING SUCH CRIMINAL ACTS AGAINST THE PEOPLE OF THAILAND BY CANCELING THE PERMIT FOR THE IMPORT OF HIGH-PRESSURE WATER CANNON TRUCKS FROM THE THAI GOVERNMENT AND TO PUSH FOR CHANGE TOWARDS PEACE AND DEMOCRACY THROUGH THE THAI PRO-DEMOCRACY MOVEMENT."

## Buddhism & ethics of selling weapons



"Monks, a lay follower should not engage in five types of business. Which five? Business in weapons, business in human beings, business in meat, business in intoxicants, and business in poison. "These are the five types of business that a lay follower should not engage in."



PEACE



designed by  freepik

**South  
Koreans  
must end  
sending the  
weapons to  
Thailand and  
other  
dictatorial  
countries  
immediately**



# How South Korea's exported weapons are used

## Cases in Myanmar and Sri Lanka

Hyunpil Na South Korea

### Korean-made tear gas used in Myanmar protests

● On 1 February 2021, Myanmar citizens staged massive protests against a military coup in the country.

● Myanmar's military and police used tear gas to disperse protesters in the early stages of the protests, and it was alleged that tear gas and other weapons exported by Korean companies were used in the process, which was confirmed to be true.

●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Omega Research Foundation, Amnesty International and the Hankyoreh Newspaper (21 March 2021), South Korean companies DAEKWANG Chemical and SIPJA Technology have exported tear gas and guns capable of firing tear gas to Myanmar. DAEKWANG Chemical exported 189,364 DK-N500 and DK-38s tear gas grenades loaded into tear gas guns in 2014, and 19,020 DK-44 (sound, 6BANG) and DK-N500 (empty) grenades in 2015. SIPJA Technology also exported the SJ-102 tear gas weapon in 2014. It appears to have exported launchers and tear gas at the same time in 2014.



### South Korean tear gas used against protesters in Sri Lanka

● A total of 27,034 tear gas munitions were exported to Sri Lanka: 1 in 2017, 2 in 2019 and 1 in 2020.

● In Sri Lanka, protests began in February 2022 as a result of severe economic hardship and gradually turned into large-scale anti-government protests. During this process, the government indiscriminately used tear gas, resulting in large numbers of casualties, including one person killed by tear gas. South Korean tear gas was found to have been used during these events.

● Both President Gotabaya, who was ousted by protesters, and Wickremesinghe, who has since taken power, are oppressing the people.

● In February 2023, the Wickremesinghe government continued to use tear gas against protesters.

### Problems with Myanmar/Sri Lanka tear gas exports



● In 2014 and 2015, Myanmar was in the midst of a gradual democratisation and opening up. However,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the export of South Korean tear gas when the country still has a military-backed president in power, prior to the victory of the NLD led by Aung San Suu Kyi in the 2015 general election.

● Criticism of the large-scale export and use of South Korean teargas in countries such as Myanmar, Bahrain and Turkey has been steadily growing since 2013. Despite this, tear gas exports have continued, and tear gas casualties continue to occur despite the company's claims that tear gas is a non-lethal weapon.

● In 2014, the Myanmar government's desire for Korean-made tear gas appeared to be in preparation for labour disputes. In fact, since 2011, labour protests have increased in Myanmar.

● In addition, since 2014 there have been large protests by workers at Korean companies in Myanmar, and in March 2015 a protest by workers at Hanse was dispersed by police, meaning that although Korean tear gas was not used to disperse the protests, Myanmar workers working at Korean companies may have been suppressed by Korean tear gas.

● The same goes for Sri Lanka. The Gotabaya regime in Sri Lanka is a dictatorship with the Gotabaya family monopolising key positions and oppressing the people. The crux of the problem is that since 2017, tear gas export licences have been issued without taking this situation into account.

● While the production and export of tear gas is problematic, the lack of consideration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ssues in the review of tear gas exports is problematic.

### South Korean warships sold to Myanmar's military

● In 2019, the Moitama, built by DAE SUN SHIPBUILDING & ENGINEERING, was delivered to the Myanmar Navy under a contract signed between POSCO International and the Myanmar Navy.

● POSCO International's predecessor, Daewoo International, was prosecuted in 2006 for illegally exporting artillery equipment to the Myanmar military.

● In 2017, the Myanmar Navy offered DAE SUN SHIPBUILDING & ENGINEERING a contract to build a large landing ship, but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rejected the project. Then POSCO International stepped in and falsified the documents to make it look like it was for civilian use, and five months later applied to export it again, which was approved.

● Despite the fact that the ship was clearly a military vessel, POSCO International claimed that it was a civilian ship.

### Problems with exporting warships

● The military ships were exported despite the Rohingya massacre and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Myanmar's military.

● A prime example of how the New Southern Policy promot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being implemented without any consideration for 'human rights'.

● In December 2020, Korean civic organisations submitted a complaint to the OECD Guidelines Korea National Contact Point (NCP), but in July 2021, the NCP rejected the complaint on the grounds that the sale of the warships was not directly linked to the Rohingya genocide.

● The Korean NCP, run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xempted South Korean companies from liability for the export of South Korean warships to Myanm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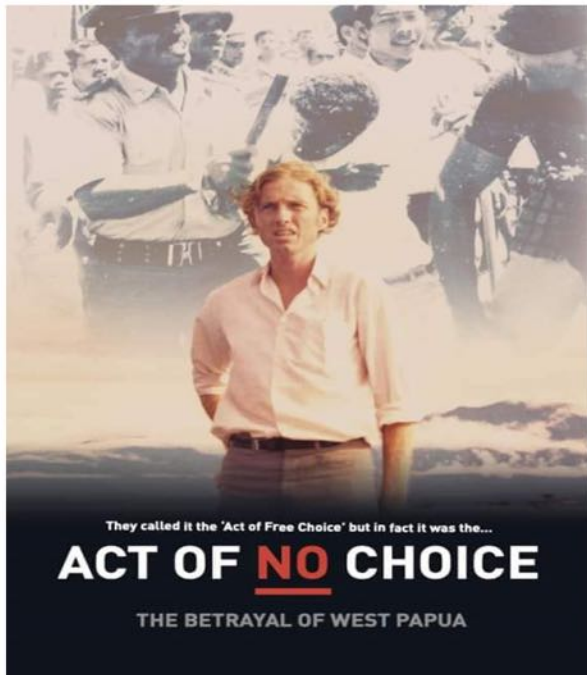


# Who do Hanwha's armored vehicles k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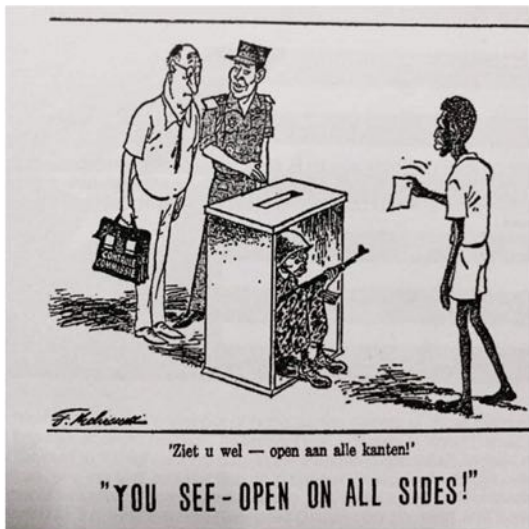
Esthet West Papua



## WHERE IS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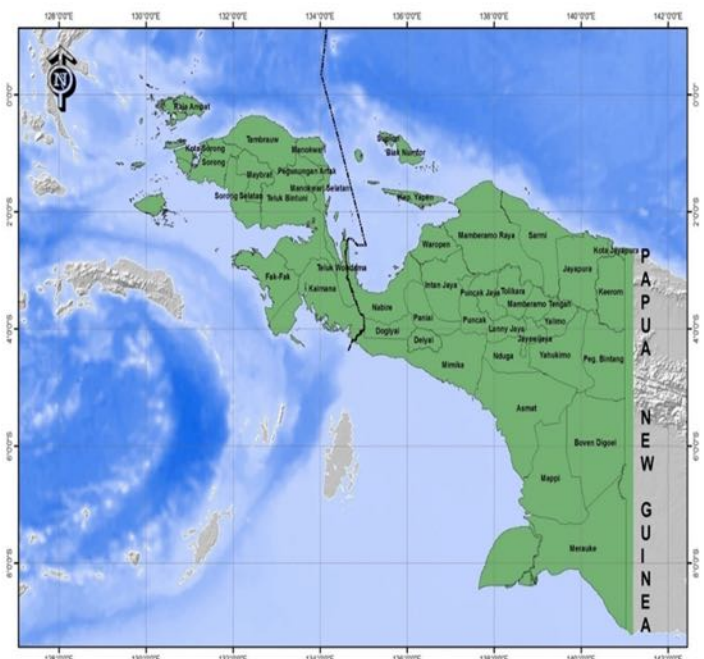
## HISTORY



- Invaded by Indonesia in 1963, and legally put under Indonesia in 1969 through a **FAKE** referendum or called the Act of Free Choice, done under UN supervision, in which 1. 025.000 West Papuan vote under terror and intimidation
- WP status as the Military Operation Zone using security approach has not changed from 1970 until now
- Economic contract between Indonesia and USA for Freeport McMoran in 1967, without Indigenous West Papuan involvement **HAPPENED BEFORE** the Political Contract through Referendum in 1969.
- International journalist are forbidden to enter West Papua
- There are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 total (**almost 69.000**): in Nduga 46.000 and 615 died (2018), Puncak 2.724 (2021), Intan Jaya 5.859 (2021), Maybrat 1.836 (2022), Star Mountains 2.252 (2021), Yahukimo 1.971 (2021) because of the massive Indonesian Military Operation in West Papua

## CRITICAL FACTS

- High rates mortality,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genocide, ecocide, unlawful killings
- Military Operation, two reasons: **to protect International Investments** (British Petroleum, Freeport Gold Mining (US), South Korea (KORINDO))
- International journalist, UN Facts Findings team are forbidden to enter West Papua
- There are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 total (**almost 69.000**): in Nduga 46.000 and 615 died (2018), Puncak 2.724 (2021), Intan Jaya 5.859 (2021), Maybrat 1.836 (2022), Star Mountains 2.252 (2021), Yahukimo 1.971 (2021) because of the massive Indonesian Military Operation in West Papua





## MILITARY OPERATIONS & SOUTH KOREAN COMPANIES CONTRIBUTIONS

- Militarism and Extractism
- Displacement and Dispossession
- South Korea is the highest weapons selling nation to Indonesia now.
- South Korean businesses in WP:
  - KORINDO
  - KIA-HYUNDAI
  - HANHWA
  - DAEJIP & I
  - DAEWOO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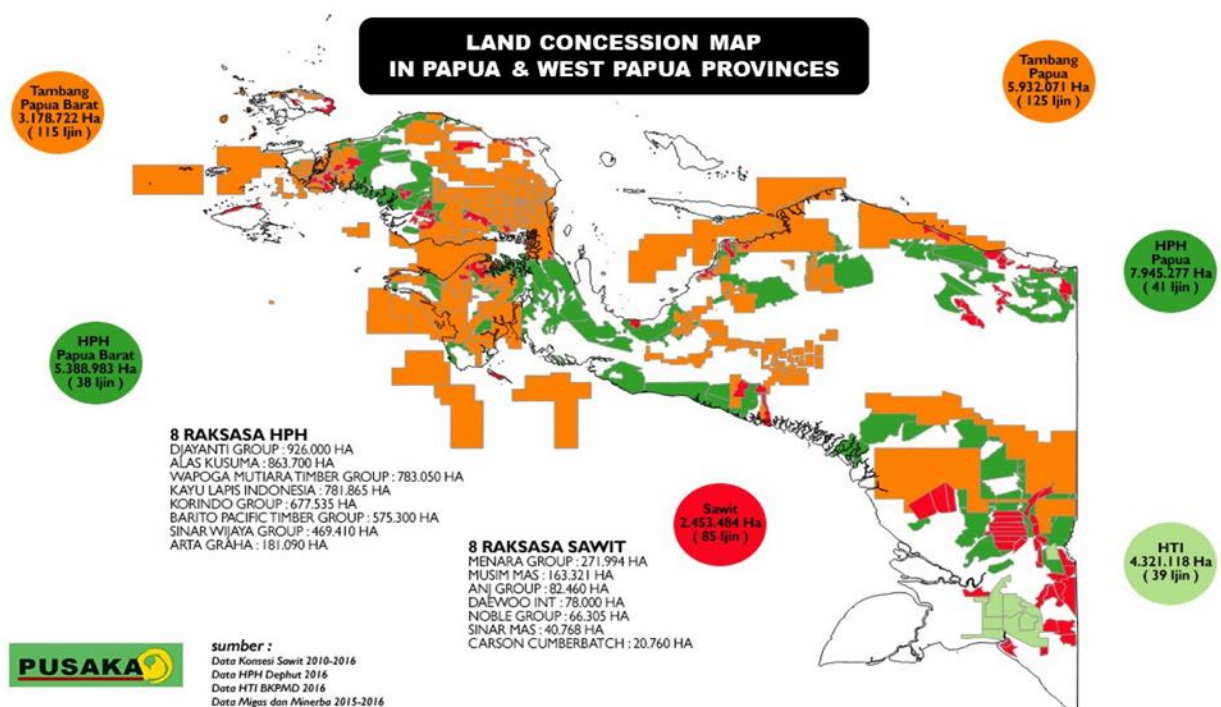


## KORINDO (KOREA INDONESIA)

- Owned by a South Korean (SEUNG UN HO)
- A south Korean Conglomerate who cut down forests in Indonesia since 1970's until now
- Expanded it's concession to West Papua since 2009 and Held large Forests concession over West Papua
- **Deforestation: due to illegal logging, palm oil plantation, Land Grabbing for Food Estate Projects. Example: (MIFEE: Merauke Integrated Food Energy Estate, 2010)**
- The group has cleared Papuan forest up to 25 thousand hectares and built the world-largest palm oil plantation in West Papua.
- TNI has an official role in the 'Food Estates' and palm oil plantations, logging coupes, oil rigs and large mines in West Papua, 'protecting' these projects from Indigenous people protesting the destruction of their lands.







## KIA-HYUNDAI

- ❑ Kia-Hyundai's 'light truck', the KM250, is used to transport troops, prisoners and weapons in West Papua.
- ❑ KH178 Howitzer, a long range artillery weapon



*Chung Ei-sun, chairman of Hyundai*



# HUNDAI

- Hyundai / Kia has sold 54 of these artillery weapons to TNI.
- Field tested by Kostrad, it can fire 105mm shells.



The Kia KM420 is a light military vehicle used in Papua in 2021



# HANHWA

- Specialized supplier of defense products in Indonesia
- Sell 803 K3 light machine gun with SNT Motiv- a firearms defense company, K3 Machine Gun, 54 105 mm towed howitzers and 105mm high-explosive ammunition now used in West Papua
- Sell 43 Tarantulla light tanks to Indonesia





## HANHWA

- Sell 44 barracuda (2004) and 43 tarrantulla to Indonesia in 2016 manufactured by Doosan DST
- Barracuda 'riot suppression' vehicles are a familiar sight wherever there is protest activity in West Papua
- Sell 803 K3 light machine gun to Indonesia, now used in West Papua



- The Chairman: Kim Seung-youn



## DAEJI P & I

- CEO: SANG CHO HYO
- It's three products: WOLF, TAMBORA, PROMOTER used to disperse and surpress peacefull rally in West Papua



- The Wolf, or DAPC-1, accommodates 8 troops
- Used by BRIMOB (Gegana) since 2013



## DAEWOO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 **CEO (PAK DU SEON)**
- **The company has been sold to Hanhwa**
- signed a contract worth \$ 1.08 billion to build three DSME 1400 submarines for the Indonesian.



## S&T MOTIV AND DASAN MACHINERIES

- **K2 Assault rifle**
- **806 K2 rifles were bought by Indonesia between 2006 – 2018**
- 

- **CEO: KIN HYUNG CHUL**





## VEICLES USED TO SURPRESS DEMONSTRATION



## PRESENT SITUATION IN WEST PAPUA



# NO FREEDOM OF SPEECH NOW !



## WHAT WE NEED TO DO



- South Korean companies to STOP making FORTUNE out of our bloodshed and miseries
- Stand in Solidarity with us by amplifying the humanitarian problems in WP
- Put pressure the Indonesian government to open access to the International Facts Findings and journalists to enter WP
- UN must take care of IDP and refugees...critical situation (Humanitarian crisis is not internal affairs)
- STOP training and supporting weapons for TNI/POLRI to kill West Papuan



**IN THE END, WE WILL REMEMBER NOT  
THE WORDS OF OUR ENEMY, BUT THE  
SILENCE OF OUR FRIENDS !**

**Marthin Luther King Jr.**



**WAA....WAA...WAA !**



# Solidarity between arms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ies

Zelda Grimshaw Australia

See page 30



## **Part2**

# **Arms trade × Intersectionality**

**Arms trade and Feminism**  
(Zelda Grimshaw, Australia)

**Green warfare created by defense industry**  
(Minyeong Kim Han, South Korea)

**Infected people and non-human animals  
traded as livingweapons**  
- confronting pathways to refugeeizations  
(Ajeong, South Korea)

**Hitting the Jackpot with bombs and the  
Climate Crisis** (Bo-ram Bae, South Korea)

**Why should we be connected?** (Jungmin Choi,  
South Korea)

# Arms trade and Feminism

Zelda Grimshaw Australia

See page 48

# Green warfare created by denfense industry

Minyeong Kim Han Peace Momo

## Green warfare created by defense industry

Minyeong Kim Han

Action Research Manager, Peace Momo



## Green ammunition at an arms fair



Pungsan booth at MADEX in Busan, June 2021

*"We export a lot of our products to the Philippines and Indonesia, you know, because there's a lot of armed conflict, but there's a lot of rainforest there, right? So they're complaining to us. The lead in the ammunition is destroying the forest. So we took the lead out of the ammunition."*

## "ESG" in the defence industry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KIET, 2022), "Recent proliferation of ESG management increases ESG risks in the defence industry producing weapons".

: Explained that foreign investment and export financing is a risk for defence companies and pointed out the need for ESG assessment criteria tailored to the specificities of the defence industry.

The defence industry is indeed affected by the social climat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investment restrictions. Hanwha's sale of its cluster munition business to KDI in 2020 is a prime example.

The Korea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assesses the ESG performance of listed companies and publishes an annual rating.



〈표 3-3〉 국내 주요 방산기업들의 ESG 리스크 대응 현황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풍산	·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획득	· 대체소재 연구 생산 · 탄약 폐기물의 적소 · 분쟁관련 사용 근절	-
LIG 넥스원	· 수소연료전지 드론 개발 · RE100 달성 추진 · 친환경 공급망 구축	· 협력회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동수주 추진	· ESG 위원회 신설 · ESG 전략 설정 및 추진체계 이행 점검
현대위	· 2040 탄소중립 선언 · 시제품 DX화 · 사업장 내환경 개선 확대	· 전직단 사업 분할·매각 · 협력사 지원금 지원 · 상생펀드 조성·운영	· ESG 위원회 신설 · 기업사회공헌장 제정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 차세대 고효율 항공엔진 부품 제작·공급 · 신소재(탄소섬유)를 수소 가스터빈 엔진 개발	· 세계최대기업인기행 차주 참가 Top5 선정 · 분쟁관련 사용근절 · 상생협력위원회 운영	· 사외이사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 · ESG 위원회 신설
한화 시스템	· 친환경 도시 항공 모의데이터 센터 · 탄소배출관리시스템 개발	· 자원봉사 기술·고노력 · 해당 산업에 기여 · 중소기업, 사회적 상생 협력 70개 지원 · 동반성장 상생펀드 조성	· ESG 경영관리시스템(ESG ONE) 개발
대우조선해양	· 차세대 항공엔진 전기 추진체계 개발 · 디지털 전환100 추진	· 상생협력 특례지구 출연 · 무역산업 특화단지 지원(국무 국가안전보장)	· 우선사업 특화 ESG 평가 시비 개발 · ESG 위원회·추진단 설치 · 협력사지원 운영
현대중공업	· 차세대 항공엔진 전기 추진체계 개발 · 스마트조선소 구축	· 협력회사 맞춤형 ESG 지원 개발 · 동반성장 펀드 조성	· ESG 위원회 신설 · 이사회 다양성 확보
KAI	· 스마트팩토리 적극 활용 · KF-21 등 시제기 DX화	· 협력업체 기술·교육 지원 · 해외 동반연출 추진	· ESG 위원회 신설 추진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예정
한국항공우주산업	· 전가공리사시스템, 다목적 무인 전투기 개발 계획 · 수소연료전지/방위 무인 플랫폼 개발	· OMM Level 4 <sup>3</sup> 인증 · 제품 안전성 확보 · 동반성장프로그램 운영	· 지속가능경영의 발동 · 기업사회공헌장 제정

자료: DART, <https://dart.fss.or.kr/infocnt.do> 2022. 7. 25일 기준 사업보고서와 기타로 산업연구원 작성  
주: 1) 국내 기업은 대우조선해양(수출입국산)과 소프트웨어(SW)공학연구소(SW Engineering Institute, SWI)가 개발한 초격차 프로세스 개선 및 평가 모델

How defence companies are responding to ESG

Environmental issues: Development of environmentally friendly products, use of alternative energies, etc.

Social aspects: Divestment from weapons of mass destruction, use of less lethal alternative materials, eradication of conflict irrigation, etc.

Governance: Establishment of ESG committees, publication of sustainability reports, establishment of ESG indicators, etc.

(KIET, 2022)

p95, Global competitiveness assessment of major Korean defence products and development issues (KIET, 2022)

## "ESG" in the defence industry

〈표 5〉 국내 주요 방산기업의 ESG 평가 등급

등급	주요 기업	주요 사례
A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G 넥스원, 대한항공, 기아자동차, 현대위아, HSD엔진, 한국조선해양 등	- 한화: 집속탄 사업 매각, 시제품 DX화 - LIG 넥스원: 수소연료전지 드론 등 친환경 동력제품 개발, ESG위원회 신설 - KAI: 스마트팩토리 적극 활용, KF-21 등 시제기 DX화 - 풍산: 분쟁지역 광물 사용 근절, 재래식 탄약 생산에 안전소재 사용, 대우경탄약의 확산 범위 축소
B+	풍산, 현대로템, 대우조선해양, STX엔진, 한국카본 등	- 한화: 집속탄 사업 매각, 시제품 DX화 - LIG 넥스원: 수소연료전지 드론 등 친환경 동력제품 개발, ESG위원회 신설 - KAI: 스마트팩토리 적극 활용, KF-21 등 시제기 DX화 - 풍산: 분쟁지역 광물 사용 근절, 재래식 탄약 생산에 안전소재 사용, 대우경탄약의 확산 범위 축소

자료: 산업연구원 작성

주: 2020년 기준 A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의 수는 108개사로 전체의 14.2%를 차지

p.29, ESG risks and responses in the defence industry (KIET, 2022)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게 'Protect'는 인류와 지구를 지키고,  
더 나아가 다음 세대가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Protecting Human-beings, our Earth and our Future generations by building a  
better and prosperous environment.  
That is what "PROTECT" means to Hanwha Aerospace.

In 2021, Hanwha declares "carbon neutrality by 2050" in its sustainability  
report.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Hanwha Group ESG committee,  
each listed affiliate, including Hanwha Aerospace, has its own ESG  
committee.

R&D: Development of electrical aeromechanical devices to reduce carbon  
emissions from the operation of aircraft engines, manufacture of high-  
efficiency aircraft engine parts, etc.

Managing greenhouse gases : Aim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y 5% per unit per year by 2025

Green supply chain management and production of eco-friendly products  
after signing a green purchasing agreement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Green purchasing performance : 89 million won)

Development of various activities to achieve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UN SDGs): Tackling climate change through capacity  
building in energy management, promoting sustainable industrialisation  
through the development of electricity-based UAVs, etc.

Hanwha Aerospace Sustainability Report 2021, 2022

## Hanwha Aerospace



Hanwha employees' upcycling campaign: Dolls made from plastic waste near  
workplaces in Asan, Changwon, etc. donated to local children's centres.  
Source: Hanwha Aerospace



열풍뉴스 기후뉴스 기후행동 글로벌, 지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첫 지속가능보고서에 담긴 내용

A. 남우환 기자 · © 송민 2021.11.22 14:36



Climate crisis Independent news Penguin reports on Hanwha Aerospace sustainability report

## LIG NEX1



Hydrogen fuel cell powered drone being developed by LIG NEX1

Establish ESG committee in 2021, develop strategies and targets for carbon neutrality by 2050

Reducing energy consumption, increasing the use of renewable energy, managing greenhouse gas emissions, green purchasing, etc.

Development of hydrogen fuel cell based transport drones: Selected as a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MOTIE) (23 billion won in government funding and 44.3 billion won in local funding out of a total project cost of 44.3 billion won) Drones for delivering ammunition and emergency supplies during military operations are being actively developed with overseas markets in mind.

## Hyundai Rotem



Hyundai Rotem's defence drone, first unveiled at ADEX in Seoul in 2021. Source: Hyundai Rotem website

Establishing a carbon neutrality policy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R&D and asset investments are underway to improve resource circularity, save energy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Promotion of green technologies: Multi-purpose unmanned vehicles to be delivered to the South Korean military in 2022 - using batteries instead of diesel, hydrogen fuel cell-based defence drones, etc.

Sustainability report - carbon reduction, green purchasing and contribution to the UN SDGs.

"Green wars" are coming



When ESG meets "Korea's number one salesman".

After Russia's invasion of Ukraine, the defence industry is doing well and the ESG framework is changing.  
: Once seen as an unethical investment area, the defence industry has gained an image as an industry that keeps people safe after the outbreak of war.

No climate justice unless  
we divest from  
the arms industry



Disclosure of military greenhouse gas emissions urgently needed.

: The military sector is carbon intensive and critical to reducing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National security should not be used to exempt the military from reporting on carbon emissions. (Conflict and Environment Observatory)  
: Exposing the climate impact of war and militarism -> Defence industry greenwashing may be less effective  
: Research, advocacy and direct action should be combined at the international level.

Holding war-makers and defence contractors accountable for ecocide

: The amount of carbon emitted by activities directly related to the war in Ukraine is approximately 100 million tCO<sub>2</sub>e (as of November 2022, Initiative on GHG Accounting of War). This is more than the total emissions of the Netherlands over the same period.

: 124 hectares of nature reserves in Ukraine are affected by the war. The environmental devastation of the war includes forest fires, soil contamination and destruction of wildlife habitats (Ecoaction, Greenpeace, 2022).

: Accountability of defence companies for human rights abuses in conflict zones is often held through frameworks such as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and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national laws). There is a need for a framework to address environmental degradation by defence companies.

A civil society strategy on defence ESG is needed.

: The ris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the result of social movements that have put a minimum of regulation and brakes on unethical corporate behaviour and anti-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policies. New strategies are needed to counter industry's use of ESG to 'wash over' questionable or unethical practices.

: The rising profile of the defence industry in times of war and proposals to ease restrictions on defence investment. Should be monitored closely.

War and militarism are 'everybody's business', climate and peace movements must actively engage in solidarity

: "If we can't stop wars, can we stop the climate crisis? Asking new questions about security.

: See you at the StopADEX campaign this autumn!



Let's stop                      ming



## 참고자료

KIET (2022), Global competitiveness assessment of major Korean defence products and development issues  
KIET (2022), ESG risks and responses in the defence industry  
2021, 2022 Hanwha Aerospace Sustainability Report  
2022 Hyundai Rotem Sustainability Report  
Hyundai Rotem Blog <https://blog.hyundai-rotem.co.kr/703>  
LIG NEX1 Website  
LIG NEX1 Company Newsletter (May 2023 issue), A defence company aiming for carbon neutrality?  
Conflict and Environment Observatory (2022), A framework for military greenhouse gas emissions reporting  
Initiative on GHG accounting on war (2022), Climate damage caused by Russia's war in Ukraine  
Amnesty International (2019) Outsourcing responsibility: Human rights policies in the defence sector  
Greenpeace (2023), Greenpeace and Ecoaction launch map of environmental destruction caused by Russia's war in Ukraine

# Infected people and non-human animals traded as living weapons - confronting pathways to refugeeization

Ajeong International Waters 31

## Prologue

Happy twentieth birthday to World Without War. I am writing this short article on the topic of 'Arms Trade and Refugees'. I hope it can serve as a modest celebration gift. I wish I could go into a full-blown discussion, but due to time constraints, I'll just pose the question. First of all, I'm going to apply some examples to address the three keywords "arms," "trade," and "refugees" as both concrete and expanded concepts.

I think activists at War Without War have done a great job of highlighting that weapons sold by various South Korean companies are used directly in wars to suppress or kill pro-democracy protests somewhere across the border, and making the connection that some of the people who have been forced to flee villages and communities destroyed by weapons sold by South Korean companies have come to South Korea and become asylum seekers. So today, I would like us to think about the reality of human and non-human animals being mobilized as 'living weapons' beyond the 'weapons' imagined as guns, tanks, and fighter jets. Whether it is the vulnerability of people living with HIV in Russian correctional facilities being traded for conscription or the olfactory specificity of dogs in military dog training centers being traded for munitions, there are those who are 'refugeeized' even within their own borders, and

I would like us to think critically about what meaning states attach to non-human animals to mobilize them for war.

### Vulnerable prisoners with HIV enlisted in war

Russian authorities recruited nearly 50,000 people from correctional facilities to fight in the Russian-Ukrainian war with the promise of amnesty and the provision of antiviral medication for treatment and self-management for people living with HIV in exchange for six months of service. They were sent to the front lines of a hopeless battlefield as members of the Wagner Group as human shields, with the majority reportedly killed in their first battle. They were made 'identifiable' and subject to discrimination and hatred, with red bracelets for those living with HIV and white bracelets for those with Hepatitis C. They were reportedly pushed away from first aid when they were wounded, even if they were covered in blood, because of prejudice and distorted perceptions of their infections. Their bodies were literally mobilized as living weapons, and they are collectively labeled as the soldiers most at risk of being killed - cannon fodder.



A Russian soldier wearing a red bracelet identifying him as HIV positive and a white bracelet identifying him as a hepatitis C patient. (Photo: Mauricio Lima, The New York Times)

According to the testimonies of soldiers who narrowly survived the battlefields of death and became prisoners of the Ukrainian army, Russian correctional facilities offered them antivirals and amnesty while depriving them of vital and effective medication to survive. In particular, many long-term prisoners, who had no way of getting out alive without treatment, accepted the offer, which they described as “a choice between dying slowly in prison and dying quickly on the battlefield.”<sup>1</sup>

For people living with HIV, the battlefield becomes a place on the continuum of everyday

---

<sup>1</sup> Andrew E. Kramer, 'A Quick Death or a Slow Death': Prisoners Choose War to Get Lifesaving Drugs, New York Times (April 21, 2023).

discrimination and hate, and the stigma that legitimizes it. It could be argued that even before entering the war, they were already fighting a different kind of battle against stigma in society.

### Nonhuman animals mobilized and traded as munitions

Humans are not the only animals whose bodies are traded as living weapons. Dogs, among other animals, have long been placed in positions of war and forced to perform military labor. With a sense of smell many times greater than that of humans, dogs have been used to detect explosives, metals, and plastics in landmines, and since World War II, many dogs have been trained and used for forced military labor<sup>2</sup>, including mine clearing.

On May 8, 2022, an explosives detection dog made headlines when he was awarded a state medal by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for finding more than 200 explosive devices, including mines and unexploded ordnance, left by Russian forces in the two months following the outbreak of the Russian-Ukrainian war. His name, Patron, means “ammunition/bullet” in Ukrainian. Zelensky described Patron as “a small but very famous sapper and military engineer” and praised the dog for his “very important and urgent work for the safety of Ukrainian children.”



Patron helps educate children on landmine and other explosive safety issues (Photo: UNICEF screen capture)  
<https://www.unicef.org/ukraine/en/stories/dog-teaches-children-mine-safety> (Last searched on March 15, 2023)

In the video shared by Patron’s handler, Mykhailo Iliev, which has garnered nearly 300,000 followers on social media, Patron appears to be excitedly searching for explosives with his tail wagging. But for the millions of people around the world who have watched the video, the dangers that the “cute” dog, clad in a bulletproof vest, has had to endure as he navigates barefoot through protruding nails an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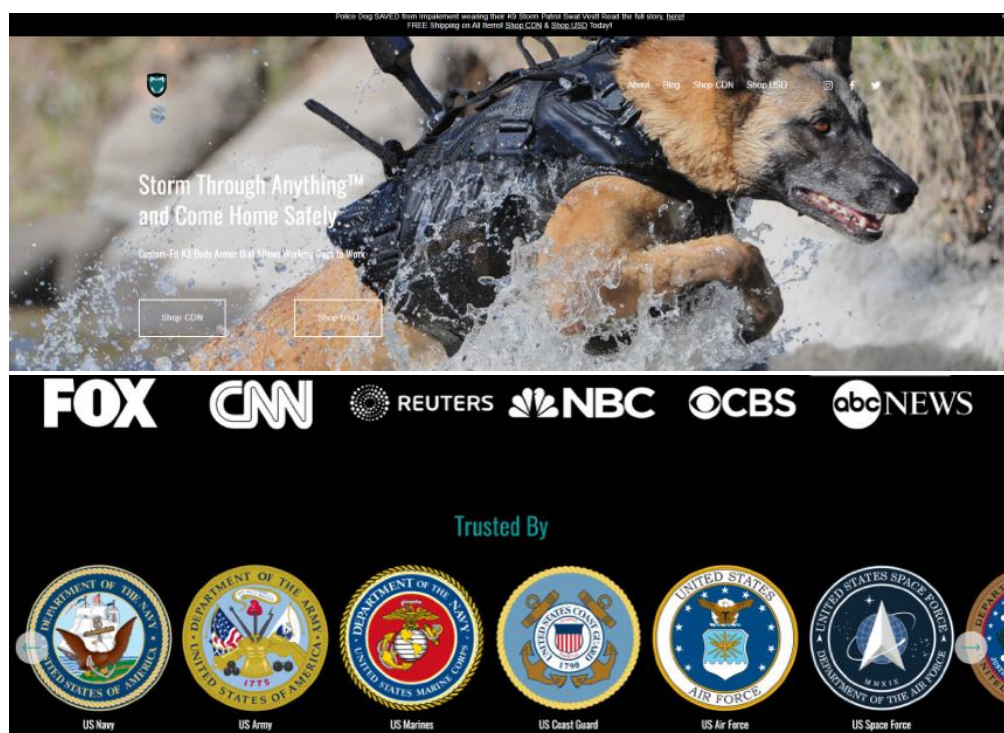
<sup>2</sup>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we will refer to the mobilization of conscripted soldiers and non-human animals for war as “forced military labor.”



broken steel at the scene of the devastation go unnoticed.

Police and military dogs are commonly referred to as K9s. The vest worn by Patron is made by a Winnipeg, Canada-based manufacturer called K9 Storm, which provides military dog supplies to the U.S. Army, Navy, Marine Corps, Coast Guard, Border Patrol, and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as well as the Canadian, Australian, New Zealand, Norwegian, Polish, Belgian, Dutch, Swedish, Danish, German, and French militaries.<sup>3</sup>

K9 Storm, whose main product is bulletproof vests for military dogs, is a munitions manufacturer, so to speak. “The new private military companies (PMCs) are offering a much broader range of services and dealing with a wider range of customers than ever before... They’re diversifying to the point where they’re able to cover the whole spectrum - training, logistics, operational support, post-conflict process - and act for a wide range of customers simultaneously in multiple showrooms and battlefields,” says Peter Singer.<sup>4</sup> Dogs like Patron wear vests made by K9 Storm and are deployed on the battlefield to clear explosives in the name of post-war “recovery.” In terms of Singer’s spectrum, K9 Storm is a company that profits from its involvement in operational support and post-conflict process.



K9 Storm’s partners are listed below (Photo: K9 Storm website screen capture)

As a manufacturer that stands for the safety of military dogs, at first glance it might seem like they’re contributing to peace rather than war, but I think it’s worth examining what it means to outfit dogs that are thrown to the field of death for humans in wars fought by humans, and whether it’s ultimately for the safety of humans, or for the sake of the trade, which is often framed as if it’s for the safety of dogs.

3 <https://k9storm.com/> (Last searched on March 15, 2023).

4 4 P.W. Singer, “Corporate Warriors: The Rise of the Privatized Military Industry”, 2003.

Few people don't know that non-human animals are used in post-disaster recovery or warfare, but fewer know that they are routinely forced to train for such mobilizations, and that they are subject to risks, injuries, deaths, and accidents.

In South Korea, the 2013 amendment to the Animal Protection Act and the 2015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unitions Management Act prohibited the military from donating dogs, retired from military dog training centers or deemed unfit, for medical use or euthanasia, and introduced a civilian adoption system.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mende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unitions Management Act to provide for the free transfer of military dogs and horses that are not capable of performing operations to civilians, and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military dogs' and 'ammunition' were decided to be 'transferred' or 'loaned' together.<sup>5</sup>

- Allowing free transfer to civilians of military dogs and horses whose physical fitness and senses are inadequate for military operations.

- Establishing grounds for the free loan of ammunition in cases where the export of military equipment requires the loan of ammunition for trial operation, and in cases where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export of ammunition in accordance with national initiatives.

I think we shouldn't lose sight of the fact that in the military, dogs and horses are treated as "munitions" like ammunition, not "soldiers." If we want to recognize their service as fellow members, they shouldn't be munitions in the first place. This discussion reminds me of the Vietnam War, when we talked about "four-legged comrades," but abandoned our dogs. According to the Michigan War Dog Memorial, 4,234 military dogs deployed to the battlefield during the Vietnam War saved the lives of nearly 10,000 soldiers, but the withdrawal orders issued at the end of the war included instructions to leave the dogs behind, which were categorized as "unnecessary military equipment." Handlers who left their dogs behind say they can't get over the shock and sadness of that experience, even more than 50 years later.<sup>6</sup>

It's not uncommon for non-human animals to be abandoned or slaughtered after the end of any operation or war. After the fall of the Berlin Wall, most of the 7,000 dogs used to guard the wall were killed because they were trained to attack those who escaped across the dividing line and because the residents of West Berlin were afraid of them.<sup>7</sup>

How are all the animals that were bought, sold, and used in wars doing? In asking this question,

---

5 "Transfer of Retired Military Dogs for Free - Partial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Property Management Act",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ress Release (January 12, 2015).

6 Michigan War Dog Memorial website <https://mwdm.org/index.php/the-wall>(Last searched on March 15, 2023).

7 Anthony J. Nocella II, et al., "Animals and War: Confronting the Military-Animal Industrial Complex", 2013.



Vietnam K9 Memorial Wall at the Michigan War Dog Memorial (Photo: Michigan War Dog Memorial website)

we're exploring an overlooked issue: What experiences did nonhumans have during times of war, and how have they fared since?" Recounting the war experiences of nonhuman beings is both a practice of standing with the "place-less" or "dis-placed" in a thoroughly anthropocentric history, and a fight to reclaim a place to live with them.

The proxy labor of those who are 'refugeeized' even within their country of origin

According to the 1951 United Nations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the "Refugee Convention"), "a refugee is a person outside his country of nationality who, owing to a well-founded fear of being persecuted for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membership in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political opinion, is unable or unwilling to avail himself of the protection of his country of nationality."

However, this definition of refugee does not account for the "refugeeization" of people who are left without state protection even within their country of origin, such as the aforementioned recruitment of HIV-infected prisoners by Russian authorities, or the war experiences of military dogs abandoned on the battlefield as "unnecessary military equipment".

The point I would like us to consider today is not the 'definition' of refugee as defined by the UN Convention - 'such and such a person is a refugee' - because refugee does not refer to a 'being' per se, but to a 'place'. If we can call the 'state' or 'situation' of 'statelessness' experienced in such a place 'refugeeization', then it seems to me that the question is not 'who' a refugee is, but 'how' one becomes a refugee. It is to identify the mechanisms of power that create the place of the refugee, the forces that distinguish non-nationals from nationals, refugees from citizens, abnormal from normal, human from non-human. What I want to emphasize here is that we cannot assert that the ultimate desire of the 'refugeeized' is to converge into the nation, as long as there are those within the nation who are also in the process of being 'refugeeized'. I believe that the infected people conscripted in the name of the people and the non-human animals mobilized at the call of the state are actually in a position where they are forced to perform 'proxy labor'.

Introduced in "Service Economies", "proxy labor" is a "death-political labor" that consumes the body

and mind of the worker until death, and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the worker can be neglected, replaced, or killed when or after the work is performed. Proxy labor is inevitably death-political in that it involves putting one's body into a dangerous space and exhausting oneself on behalf of someone else, and death-political labor is labor that is performed by beings who are lower on the hierarchy of race, gender, and class.<sup>8</sup> The categories of disease and species, not even mentioned here, have been presented in today's discussion as conditions for being forced into proxy labor.

### Epilogue - Saying no to refugee-producing countries<sup>9</sup>

For the first time in the 244-year history of the U.S. Navy, there is a Vietnamese-American admiral. Juan Nguyen, aged 60, a former "boat person," made headlines when he was appointed deputy commander of the Naval Weapons Systems Command (NAVSEA), which develops weapons such as ships and guns for the U.S. Navy. His news was reported around the world as an example of a refugee from the "boat people" successfully integrating into American society and achieving the American dream.

Following the fall of South Vietnam in 1975, some of the 'boat people' fleeing Vietnam were interned by the US on its territory of Guam, and Nguyen, who was seventeen years old at the time, was sponsored by a US Air Force officer couple as a 'political refugee' and became an American, moving to Oklahoma where he graduated from high school and college before being commissioned as a US Navy technical officer. He spent the next 26 years as a military engineer specializing in ship maintenance and other military fields, earning the U.S. military's highest honors for his loyalty and competence, even becoming the first Vietnamese-American to be "honored" with the rank of Rear Admiral.<sup>10</sup> Here's a portion of what he said in his commencement address.

"It is a great honor to be an admiral in the Navy, and I am immensely gratified to be the first Vietnamese-American to hold the rank of admiral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avy. ... America is a beacon of hope for all of us [refugees]. It is a great honor and privilege to serve in the U.S. Navy, to serve our country, and to suppor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sup>11</sup>

Juan Nguyen is a case in point where the schema of boat people being granted citizenship and being featured in national rituals and epics of diversity, while Vietnamese refugees and their descendants, brought to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wars caused by the United States, are recognized as true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by being integrated into its military and society as the United States wages

8 Lee Jin-kyung, "Service Economies: Militarism, Sex Work, and Migrant Labor in South Korea", 2010.

9 The epilogue is a summary of my writing: Refusing the violence of nationalization, "Refugees, Refugeeized Lives," 2020.

10 Kim Tae-hoon, "Vietnam Escaped 'Boat People' Boy Becomes Admiral in US Navy," Segye Ilbo, October 13, 2019.

11 Kim Tae-hoon, above article.





Admiral Juan Nguyen (right) is sworn in shortly after being promoted to the rank of vice admiral in October 2019 (Photo credit: U.S. Navy website)

war against the newcomers, is confronted with reality.

The place of “citizens” that these former “refugees” are contesting is also the place they are guaranteed in the form of participation in state violence, inverting histories of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while creating refugees elsewhere. If the place of ‘citizen’ that ‘refugees’ have managed to secure by proving their loyalty to the state is only possible by presupposing the ‘refugeeization’ of others somewhere else, it seems to me that we need to start thinking about the place of such a citizen, the place of a national, again, and that this thinking can begin with the imagination of rejecting a state that engages in the violence of ‘nationalization’ that produces refugees.

# Hitting the Jackpot with bombs and the Climate Crisis

Bo-ram Bae Institute for Green Transformation

Here's a village

It's a very small and old village hidden away in a pine forest, a village forest that, like many seaside villages in South Korea, was planted to keep out wind-blown dust and cushion the impact of typhoons. As with any rural village, the villagers have lived off what they can get from their land. They gathered clams from the tidal flats off the west coast of Boryeong, Chungcheongnam-do, sold them, and ate them; they fished in the sea and grew rice in the cultivated land next to the village; as with many small rural villages, they didn't have running water supply and drainage for a long time, so the residents drank groundwater until the late 1990s. By and large, the residents have lived with nature their entire lives. Not because they had any great ecological purpose, but because that's the way life was organized for them. It might be more accurate to say that they had no choice but to live with nature. And that living with nature includes pollution.

Living with nature often means living with pollution in some places, and sometimes those places become a "cancer village," like the Gotbae Village in Boryeong, Chungcheongnam-do. To tell this story, we need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history of Gotbae Village. The village has been used as an air force firing range since 1962. Until 1980, it was a firing range for the Eighth U.S. Army, and in 1981, it

was transferred to the South Korean Army, and since 1991, it has been a military training center for the ROKAFAD-COM (ROKAF Air Defense Command). According to local residents, military drills continue to take place every month and often lasts the whole month, except for July and August when there are many vacationers visiting the beach. There are usually 150 days of drills a year. If we say shooting has been going on since the Air Force took control of the area in 1991, this means that for a total of 32 years, military drills have taken place every three days off the coast of the village, which residents consider their fishing ground. Here at the Gotbae Village firing range, the main focus of the drill is on air defense training to counter the infiltration of small unmanned aerial vehicles by enemy forces into the metropolitan area. When a small model drone flies over a small island off the coast of the village, 20mm Vulcan cannon is fired to shoot it down. When the “annihilation drill” begins to wipe out the enemy, more than 500 shells from one Vulcan cannon, and about 3,000 shells from six Vulcan cannons are dropped into the sea and mudflats. In 2018, 86,894 artillery shells were fired in the exercise. It was 79,994 shells in 2020, and 79,227 shells in 2021.<sup>1</sup> The three years combined from 2018 to 2020, totaled 246,815 shells.

### 320,104 explosives fall in Ukraine

320,104 pieces. More than 320,104 explosives have fallen to the ground in Ukraine in just one year of war.<sup>2</sup> According to the Guardian reports based on an announcement by the Ukrainian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compiling a record of the ecological carnage caused by the conflict, one third of the country’s land is in a dangerous state due to bombing and resulting pollution. 40% of arable land has been destroyed or contaminated by the war and is unable to be cultivated. In the Black Sea, where migratory birds come and go, mines laid by retreating Russian forces are a new danger. Where do 320,000 shells and projectiles come from and where do they go?

### Where do bombs come from and where do they go?

Every shell, every single one of them, falls into buildings, cities, land, rivers, and oceans. This includes unexploded ordnance. In 2012,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nducted an environmental study of Gotbae Village after residents identified fish with skin diseases and claimed they had developed cancer due to the army base. The study found RDX, a gunpowder substance, in marine sediments. RDX was

---

1 Lee Geun-pyeong, 2023.01.16 [Exclusive] Drills to shoot down un/manned aircraft, halved after 9.19 military agreement of the Moon administration, JoongAngIlbo

2 “Ukraine has had to absorb or neutralise the impact of 320,104 explosive devices,” in The Guardian, 2023. 02.20, The ‘silent victim’: Ukraine counts war’s cost for natur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3/feb/20/ukraine-war-cost-for-nature-russia>

also detected in oysters collected from the area. Cadmium above the standard was detected in oysters and fish along the coast, and groundwater contamination was also confirmed.<sup>3</sup> The most impressive part of the MOE's findings is that, given the circulation of seawater, the RDX may have migrated to nearby waters, requiring investigation of its accumulation in marine sediments and organisms. Where did this RDX come from? RDX (Research Department Explosive), also known as 'cyclonite', has been used as an explosive since it was patented in Germany in 1899, and was fully weaponized in World War II. It was used as the main ingredient in high-explosive gunpowder because of its extremely high explosive power and fast ignition rate, so it's safe to say that all live ammunition contains RDX as a raw material.<sup>4</sup>

### Hit the Jackpot with bombs

Last summer, the Polish jackpot was hit. The K-9 howitzer, the K2 tank, and other domestically developed weapons were awarded 20 trillion won in export contracts to Poland. When the jackpot hit, defense companies such as Hanwha Aerospace and Hyundai Rotem, as well 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elebrated. The K9 is getting good reviews for having a gunfire range of 40 kilometers, enough to cover the distance from Seoul to Suwon or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for its rate of fire being as high as three shells in 18 seconds. Although there are many better weapons, the K9 has a relatively low price to its function, and its practical capabilities have already been confirmed. It was used to devastate North Korean positions during the Yeonpyeong Island provocation in November 2010, and has since garnered international attention. It has been sold in large numbers to Eastern European countries bordering Russia. One media outlet dubbed it the "K9 self-propelled artillery belt surrounding Russia" and reported on the status of the South Korean weapon in military tensions with Russia.

In April, Hanwha Aerospace, the company behind the K9 and the self-propelled artillery belt, announced in a press release that it had posted its best-ever earnings for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sup>5</sup> The company's sales of the K9 self-propelled artillery and Cheon-mu, the K-239 missile system, helped drive these results. Its defense sales increased 247% year-on-year, and profit increased 5,107%, on top of the fact that it had already announced record earnings at the end of last year. So it's safe to say that it did hit the jackpot. On April 24, the Stockholm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announced that defense spending around the world has hit a new record, citing the war in Ukraine and military tensions in East Asia as the reasons for this. In Europe in particular, defense spending increased by 13% year-

---

3 MBC. Contaminants partly detected around Boryeong Air Force Range. (March 9, 2012) [https://imnews.imbc.com/news/2012/society/article/3032867\\_31034.html](https://imnews.imbc.com/news/2012/society/article/3032867_31034.html)

4 Kim, Hyun-Soo. (2006). The technical field of high explosives research.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44(5), 435-443.

5 <https://www.hanwhaaerospace.co.kr/kor/media/newsroom/view.do?seq=305>



on-year, which is, as you could guess, due to the war in Ukraine.<sup>6</sup> As Eastern European countries began to support Ukraine with weapons, arms purchases began to surge, and South Korean defense companies are taking advantage of this boon. Hanwha Aerospace has declared its ambition to become a pillar of South Korea's security and economy, and the defense industry is gaining traction as an export-oriented industry.

### Carbon Neutral shell

In its 2022 Sustainability Report, Hanwha Aerospace declared its goal of carbon neutrality by 2050. "For Hanwha Aerospace, 'Protect' means protecting humanity and the planet, and creating an environment where the next generation can live in a safer and more prosperous world." They present their plans for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production of their weapons, provide information on the use of resources such as energy and water, and explain their blueprint for producing eco-friendly products. We may soon see fighter jets, tanks, and submarines that run on electricity, and we may even witness a carbon-neutral warfare in which carbon-neutral weapons are used.

But there's something missing from this beautiful blueprint. It doesn't include the greenhouse gases emitted by the residents of Boryeong Gotbae Village as they collect shell casings. We don't even know how much greenhouse gases are emitted in the process of the firearms training. The carbon emissions from the health effects of the residents' trips to and from the hospital are not counted as well. The carbon emissions from the reconstruction of the city destroyed by the surface-to-air missile are never counted. What's needed for the cleanup of Gotbae Village, which the weapons pollute, or for the restoration of the battlefield is not counted. If we were to identify the carbon emissions of all the processes by which a product is produced, consumed, and disposed of, and try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in these processes, would weapons production be economical? The value of a weapon does not include the cost of the process of restoration from destruction.

### Carbon emissions from the war in Ukraine

Last November, the Ministry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s of Ukraine and organizations such as Carbon Limits and Climate Focus released an estimate of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military activity around 9 months into the war. The estimate was 97,286 tCO<sub>2</sub>e, and the war is still going on. The battle is taking place in areas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renewable energy farms in Ukraine, and near facilities where climate action programs have been operating. War

<sup>6</sup> SIPRI. 2023.04.24. "World military expenditure reaches new record high as European spending surges" <https://www.sipri.org/news/2023/world-military-expenditure-reaches-new-record-high-european-spending-surges-0>

is irresponsible and evil because it emits more greenhouse gases than any other economic activity, and because it destroys the efforts and achievements of a country and its citizens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 War and the Climate Crisis

In March,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released its 6th Assessment Report, concluding that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 has risen 1.1°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calling for urgent action from all sectors of society to limit the temperature increase to 1.5°C. In the wake of the report's release, UN Secretary-General António Guterres warned that "humanity is standing on thin ice, and that ice is melting fast." Despite these warnings, military spending is at an all-time high, wars continue, and South Korea's defense companies continue hitting the jackpot.

In military activities bombs are bursted along with jackpots and gun salutes, but its impact on the climate crisis is outside of our control. That's because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still excludes military activities when calculating how much greenhouse gas emissions each country must reduce. The 1997 Kyoto Protocol excluded military emissions from counting, and the 2015 Paris Agreement made it a voluntary option. In 2022, Scientists for Global Responsibility (SGR) and the Conflict and Environment Observatory (CEOBS) published an estimate of the carbon emissions from military activities around the world. They found that it accounts for about 5.5% of global greenhouse gas emissions, which, when ranked by country, puts 'military activities' behind China, the United States, and India. If 'war' were a country, it would have been required to develop and implement a plan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and sectoral greenhouse gas reduction plans after the Paris Agreement. As the 4th largest emitter of greenhouse gases in the world, the "country of war" has so far escaped the responsibility for the climate crisis.

### The illusion that war protects the world

We have connived countless military secrets because we believed that war protects our world, and accepted even when military activities are above the rule of law and norms. Even when the IPCC appealed for a collective human effort to curb the rise in global average temperature, war was allowed to continue. It was this belief that made it possible for someone to be bombed while someone celebrates their jackpots at the same time. More weapons mean more bombing and more pollution. Weapons don't just destroy buildings and military installations, they also destroy national capacities, civic cooperation and governance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Therefore, Hanwha Aerospace's 2050 carbon neutrality plan is not achievable, because beyond the weapons production, the process of rebuilding what they

destroy is not carbon neutral.

# Why should we be connected?

Jungmin Choi World Without War

For those of you who were lured in by the title and thought you'd get an answer, I apologise. I don't know the answer, and I don't think there's probably a right answer to that question, but I think it's a question we all need to ask ourselves. We often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intersectionality, but why is it important? Why is it necessary? And how do we as activists put this intersectionality into practice? I'm going to hold on to that question and keep talking.

Today we celebrate the 20th anniversary of the World Without War, so let's start with our experience. World Without War began as a conscientious objection campaign. The organisation was originally described as 'a group of conscientious objectors and their supporters'. Some of you may remember this. In fact, this description does not specify gender, but anyone who knows who can join the military in South Korea will know that this description is very gendered. This shows that when World Without War started the movement 20 years ago, there was no deep understanding of gender issues. When gender analysis is removed from the conscientious objection movement, it becomes a conservative movement, with conscientious objectors representing macho, heroic masculinity and the (female) activists who support them seeking to introduce an alternative service system for conscientious objectors who go to prison. And COs are publicly portrayed as good-natured, polite victims of state violence rather than war resisters, with supporters weeping beside them. Activists in World Without War may have been exposed



to feminism in books, but the truth is that they did not incorporate this awareness into the activities of the organisation. I don't remember exactly when that title disappeared or made it disappear, but I don't think we used it for a long time. I won't go into the details of how World Without War has tried to make feminism a guiding principle of the organisation, as this is not the place for that.

Anyway, the point I'm trying to make is that as World Without War began to understand and incorporate gender intersectionality into its work, we were able to transform ourselves from a movement that simply advocated for the human rights of conscientious objectors to one that sought more fundamental change. We continued to campaign for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but we also talked about different forms of conscientious objection - selective objection, total refusal, female conscientious objection - and we were involved in campaigns for vegan options in the military and for the repeal of Article 92 of the Military Penal Code, which punishes LGBTQI soldiers. We also decided to make the arms trade monitoring campaign, another pillar of militarism, a new campaign of World Without War, and expanded our activities to include the campaign against the expansion of the US military base in Pyeongtaek, the campaign against the naval base in Jeju Island, the campaign against the flag pledge and salute, and the campaign against so-called military love education, which is war education for children and youth.

Without an awareness of intersectionality, we wouldn't be able to look critically at the military putting so many resources into recruiting female soldiers, or the military allowing veganism, or the military becoming more queer-friendly, or arms companies developing green ammunition or zero-emission armoured vehicles.

For a country to go to war, it needs money and a budget for it. In a zero-sum society, an increase in the military budget naturally means cuts in other spending. It leads to stagnation and a reduction in welfare, especially for social minorities. The anti-war movement must be linked to the minority rights and social welfare movements. Class issues, race issues, migration issues, gender issues, etc. are all linked. Also, no one in their right mind can be in favour of war, so they have to make the whole world go crazy and make them feel like there is no solution but war. To mobilise the army, they appeal to masculinity, saying that vulnerable children and women must be protected, and to unity, erasing class, ethnic and other differences within the country and emphasising one nation. Media, educational, cultural and other resources will be mobilized for that. That is why the anti-war movement must adopt an educational and cultural approach.

So how do we put this intersectionality perspective into practice? It makes sense on a philosophical level, but putting it into practice as a movement is not so easy. I'd like to see it become more of a discussion between us. With that in mind, I'd like to start by sharing some thoughts from my own experience with World Without War.

First, we need to be aware of and advocate for multiple discrimination, which is determined by multiple interacting systems of oppression. For the anti-war group World Without War, it's about looking at the people most affected by militarisation, the groups on the frontline of this oppression. It's also about exposing how militarism propagates racism, patriarchy, sexism and homophobia.

Second, we need to reflect on our organisation's activities regularly. We need to reassess the structures, political priorities and practices of our work in the light of the social contradictions we are trying to dismantle. Are we on the right track in terms of intersectionality? As organisations get bigger, with longer histories and more diverse needs and interests of different people, decision-making structures tend to get longer and more complex. We might end up doing a lot of things that are good to do, but not necessarily vital to reduce the social contradictions we are trying to address. This, combined with the practice of intersectionality, can lead to too much work for activists.

Finally, we need to make our organisation's culture more diverse and inclusive. Diversity can lead to conflict, discrimination, exclusion and division if it's done wrong, but it's an incredibly powerful resource for social movement organisations. This means it needs to be embedded in systems and processes, not just a bunch of representatives lined up like a political party. And we need to apply that to movement organising and advocacy.

World Without War has recently completed visioning workshops and is in the process of reorganising its work to take account of intersectionality. Specifically, it will be an activity that highlights the connection between the climate crisis and militarism. The climate crisis is also a cause of war, as modern wars are fought to secure the fossil fuels, food and water that cause the climate crisis. Moreover, the climate crisis is also a consequence of war. Not only in times of war but also in times of so-called peace, military forces, defence companies, military bases and other military organisations use mainly fossil fuels and emit huge amounts of greenhouse gases.

As World Without War celebrates its 20th anniversary, we hope to become a more intersectional, international and intergenerational organisation.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easy to keep up with a huge movement like the climate movement. World Without War hasn't even started its work in earnest yet, but I attended the 924 Climate Justice March Evaluation Workshop at the end of last year, and to be honest, it was a bit of a struggle for me in some ways. I was worried: How can we be in solidarity with all these different people/organisations? Perhaps the question is how to create synergies and maintain long-term, sustainable cooperation. I want everyone to think together and learn from each other. Thank you.



국제회의

무기거래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How to resist the arms trade

발행일 2023년 5월 15일

발행처 전쟁없는세상

번역 가람, 악희, 오리, 쥬

이 자료집은 바보의나눔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